

『웰빙라이프 서산』 실현을 위한 제언

I. 서 론

○ 21세기 패러다임의 대변화

- 1990년대 말 IMF 大환란을 겪으면서, 기업의 부도, 조기 퇴직, 실업자 양산, 사회불안과 가정의 해체 등의 문제 발생
- 2000년 이후 건강의 소중함과 행복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고, 건강음식 선호, 건강운동 열풍, ‘잘 먹고 잘살자’는 웰빙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 기업에서 창출된 고부가가치 웰빙문화

- 일반 제품→ 웰빙 제품(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비데)
- 일반 아파트→ 웰빙 아파트(타워팰리스, 주상복합형 아파트)
- 일반 민박→ 웰빙 민박(펜션)
- 일반 식음료→ 웰빙 식음료(검은콩우유, 검은깨치즈, 비타500)
- 일반 의류→ 웰빙 의류(자연염색의류, 아웃도어룩, 요가룩)
- 일반 운동→ 웰빙 운동(요가, 명상, 등산)
- 일반 목욕→ 웰빙 목욕(대형 찜질방)
- 일반 관광→ 웰빙관광(해외관광: 온천욕+골프+마사지+요리체험)

○ 자치단체의 새로운 선택

-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특히 여가활동 및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광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웰빙은 자연과 친화한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에 있어, 지금까지 개발이 덜 되어왔거나 친환경을 모토로 발전해온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음

○ 웰빙도시의 추진과 그에 따른 우려

-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몇몇 앞선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웰빙도시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고, 2005년 1월 서산시에 있어서도 “주민소득 1억 원 이상”, “100세 이상 건강한 삶”을 목표로 「웰빙라이프 서산」을 선언한 바 있음
- 국내 자치단체에서도 “웰빙”을 테마로 한 새로운 도시만들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엄격히 말해 “웰빙도시”는 아직 도입단계에 불과함. 웰빙을 선호하는 사람이나 또는 웰빙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웰빙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웰빙도시”라는 것이 도시만들기의 틀을 개편하는 극적인 전환임을 감안할 때, “웰빙도시로의 전환”이 도시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또는 많은 예산이 분해되는 위험한 논거의 시작일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됨

○ 본고의 목적과 구성

- 가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선 개념과 선행적 사례는,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고에서는, 웰빙도시에 대한 앞선 개념과 사례를 통해, 「웰빙라이프 서산」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함

II. 웰빙(Well-being City)이란

1. 웰빙의 정의

1) 사전적 의미

- 영어사전 : well-being [wélbíŋ], 행복, 안녕, 복지, 복리(welfare)
- 백과사전 :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

2) 일반적 의미

- 웰빙은 일각에서는 값 비싼 유기농 제품을 먹고, 최고급 스파(Spa.)를 즐기는 고급형 소비로 정의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명상 음악, 요가 등 주로 정서적인 측면을 웰빙의 대표 상품으로 들기도 함. 또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건전한 시민상을 웰빙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웰빙의 진원은 소비니즈의 본질적 변화(무분별하고, 성취 지향적 삶의 再考, 기본적 소비 이후의 대중적 신 소비)에 있다고 보고, 웰빙을 ‘자신과 가족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라고 정의되고 있음(Understanding the LOHAS Market Identifying the LOHAS Consumer and Business & Branding Opportunities, 2000)

3) 웰빙족

-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웰빙족”이라 함

- “웰빙족(wellbeing)”은 고기 대신 생선과 유기농 식품을 먹고, 화학조미료와 탄산음료를 꺼리며, 값비싼 레스토랑 식사 대신 가정에서 만든 슬로푸드를 선호함
 - 동시에 요가-피트니스-필라티즈-단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며, 아로마 테라피-라이트 테라피 등 심신을 안정시키는 자연요법에도 관심이 많음
- “웰니스족(Wellness)”은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 행복을 위해 환경을 개조한다는 신념을 가진 신세대를 일컫는 말로 포괄적 의미에서의 웰빙족이라 할 수 있음

웰빙 하는 사람들



2. 웰빙의 개념과 성격

-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볼 때, 웰빙(Well-being)은 「'대자연과 조화'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21세기형 삶의 새로운 형태 !」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대자연과 조화’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21세기형 삶의 새로운 형태 !**

- 그리고 웰빙생활(Well-being Life)의 전반적인 동향으로 볼 때, 웰빙의 특성적 성격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자연친화적인 삶”, “유기농산물 등에 의한 건강한 삶”, “개인의 행복”, “강한 호기심과 적극적 행동”을 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연 친화적인 삶"추구

정신적 여유, 유기농산물 등에 의한 "건강한 삶"추구

"개인의 행복"에 대한 높은 비중

"강한 호기심"과 "적극적 행동"

[그림 1] 웰빙의 성격

III. 해외웰빙의 역사와 동향

1. 해외웰빙의 역사

1) 1986년 이탈리아에서 슬로푸드운동 시작

- 로마의 유서 깊은 스페인광장에 패스트 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가 들어서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들의 진출을 반대하기 위해 1986년 슬로푸드운동이 시작
- 브라 출신의 음식·와인 저널리스트 카를로 페트리니 주도로 시작한 슬로푸드운동은, “스스로 삶의 리듬을 선택하자... 미각의 권리와 음식이 주는 쾌락을 되찾자(슬로푸드 선언문 중)”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었음

2)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슬로푸드 선언 채택

- 슬로푸드가 국제적 운동으로 확산된 것은 파리에서 “슬로푸드 선언”이 채택되면서 부터임. 1989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문명에 대한 반성적 대안으로 슬로푸드 선언이 채택되었음
- “슬로푸드 파리선언”은 슬로푸드를 패스트 푸드에 대한 반대 차원을 넘어, 속도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현대문명에 대한 반성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2004년 현재 슬로푸드 운동은 50개 국가 550개 지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에도 2004년 슬로푸드 운동지부가 설립되었음

3) 슬로 라이프(Slow Life) 운동 전개

- 이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광우병 파동과 함께 슬로푸드 운동은 유기농 문제 등으로 관심의 폭을 넓혔고,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자는 '슬로라이프(Slow Life)' 운동으로 이어졌음
- 이러한 슬로라이프 운동은 1999년 일본에서 발표된 “새집 증후군의 실체에 관한 임상보고서”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었음

4) 슬로 시티(Slow City) 운동

- 이러한 생활 속의 슬로 라이프 운동은 곧 새로운 도시만들기를 추구하는 슬로시티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음
- 1999년 이태리 오르비에토에서는 최초로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목표로 슬로시티를 선언했고, 영국의 브라, 토토네스 등에서도 슬로시티를 선언했음
- 또한 2000년에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가계가와시에서 슬로시티를 선언하여 정력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5) 해외웰빙의 발전과정

- 해외웰빙은 “슬로푸드(Slow Food)”에서 “슬로라이프(Slow Life)”로 다시 “슬로시티(Slow City)”로 발전하고 있음
- 즉 음식이라는 대안적 소재에서 대안적 삶으로, 다시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역발전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것임
-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라이프 서산」은 장래 「웰빙 시티 서산」으로의 발전을 시사해 주고 있음

2. 해외 슬로시티의 추진 동향

1) ‘슬로푸드 운동’의 메카, 이탈리아 브라

- 인구 2만8000명 규모의 소도시 브라(Bra)는 16~17세기 바로크풍 성당과 팔라초(궁전)가 늘어선 마을로 매우 고풍스러움을 지닌 도시임
-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이 조용한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바로 슬로푸드(Slow Food) 운동 때문임
- 로마 스페인광장에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가 들어서게 된 사건을 계기로 브라출신의 음식·와인 저널리스트 카를로 페트리니의 주도로 1986년 ‘슬로푸드 운동’이 선언되었음
- “스스로 삶의 리듬을 선택하자… 미각의 권리와 음식이 주는 쾌락을 되찾자”라는 슬로건 하에, 속도와 생산성으로 대변되는 세계화, 대량생산,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반대하는 슬로푸드 운동이 전개된 것임
- 브라에서는 “스스로 삶의 리듬을 선택한다”는 이념을 토대로, 지난 20년 간 다음과 같은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음

<표 1> 브라의 슬로시티 추진 운동

운동이념	스스로 삶의 리듬을 선택하는 마을
실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다운 삶은 먹는 쾌락부터 · 브라 최고의 음식은 학교 급식 병원식 · 마을광장 차량통행 금지 · 2년에 한번 치즈축제 개최 · 전통상점(초콜릿, 치즈, 수공예품 전문점)장려, 대형 슈퍼마켓, 특급호텔 거부 · 이탈리아 특유의 노란 회벽과 붉은 기와지붕 장려 · 점심 3시간 철칙 · ‘치즈와 와인 맛보기’ 행사 · 적정인구 3만 5000명 유지 · 슬로푸드 영화제 개최

2) 웰빙마을, 영국 토트네스

-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토트네스(Totness)는 “더 많이”, “더 빨리”를 목표로 돌진하는 City Life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모여드는 마을이자, 삶을 치유하고 향유하는 대안마을임
- 아날로그 마을의 발전
 - 수백 년간 치유(Healing)의 고장이었던 토트네스는, 이러한 지역 자산을 토대로 삶을 치유하는 새로운 대안마을로 발전해 가고 있음. 속도와 대량경제에 반대해, 삶의 정서가 유지되는 치유의 마을을 보전·발전시켜 왔던 것
 - 다트강변 주변에는 명상캠프, 침술과 각종 대안치료가 성행하고 있고, 마을의 변화가 ‘하이 스트리트(High Street)’에 몰려 있는 상점과 식당마다 ‘그린(green)’, ‘유기농(organic)’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주민 8,000명이 사는 이 소박한 시골 마을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음. 영국 가디언지는 토트네스 사람들을 AT: Alternative Type라 부름(가디언지는 이 지역 주민 열 명 중 한 명이 대안적 삶을 사는 AT라고 지적하고 있음)
- 토트네스에서는 이러한 치유의 마을을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수십 년 간 다음과 같은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표 2> 토트네스의 슬로 시티 추진 운동

운동이념	삶을 치유하고 향유하는 대안 마을(대안적 도시)
실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웰빙 추구 · ‘오솔길 살리기 운동’ ·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 · ‘지역경제교환시스템’(Local Economy Trading System) 추진 · 매주 화요일 전통의상 입기. · 장인 정신 살리기 · 주말마다 마을 사람들의 거리공연

주 : 지역경제교환시스템(Local Economy Trading System)이란 돈으로 서비스를 사는 대신 재주와 능력을 주고받는 방법임. 예를 들어 청소나 요리를 해주는 대신 회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

3) ‘슬로시티 운동’의 메카, 이탈리아 오르비에토(Orvieto)

- 1999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오르비에토에서는 이탈리아의 다른 몇몇 마을과 함께 슬로시티(Slow City)를 선언했음
- 마을전체가 느리게 가는 “슬로시티”란 아이디어를 낸 인물은 15년째 오르비에토 시장을 맡고 있는 스테파노 지미키씨로, 지난 1999년 오르비에토 전 시민과 함께 “관광객 유치, 첨단화, 일상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간답게 사는 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슬로시티를 선언
- 오르비에토는 앞서 기술된 두 도시와는 다르게 새롭게 “슬로시티”를 선언한 곳으로, “슬로시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도시로 기록됨
- 이들 도시에서는 경음기 사용금지, 자전거 이용, 보행자 구역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과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음
- 오르비에토가 슬로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 오르비에토 슬로 시티 추진 운동

운동이념	인간답게 사는 마을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도시)	
실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는 5만 이하로 조절 · 대체에너지 등 환경친화 기술개발 · 마을광장 네온사인 없애기 · 전통 수공업/조리법 장려 · 문화유산 지키기 · 차량통제 제한, 경적 등 소음 줄이기 · 자전거 길 만들기·나무심기 · 주민 의견 수렴 · 글로벌 브랜드의 대형 체인점 거부 · 패스트푸드·유전자 변형 음식 거부 	

4) ‘테마적 웰빙시티’ 일본의 가케가와

- 일본의 가케가와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를 선언한 도시임. 가케가와시는 2002년 슬로시티를 선언하고, 슬로 라이프를 시 행정의 최우선 이념으로 설정하여 슬로 라이프와 관련한 다양한 운동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 가케가와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애학습 도시”를 세계최초로 제창한 도시이기도 함(1998)
- 가케가와시의 슬로시티는 “생애학습도시”를 더욱 발전시킨 개념으로, 삶에 대한 여유, 전통문화의 지속적 발전, 목(木)문화의 발전 등을 기본 이념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가케가와시에서 추진하는 슬로우 라이프 방식은 자동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걷자는 슬로페이스(slow pace), 전통의상과 전통 공예품을 소중히 여기는 슬로 웨어(slow wear), 목재 건강주택에서 여유와 멋을 찾자는 슬로 하우스(slow house), 평생동안 운동, 문화예술, 취미 등을 배우자는 슬로 에듀케이션(slow education) 등으로 매우 다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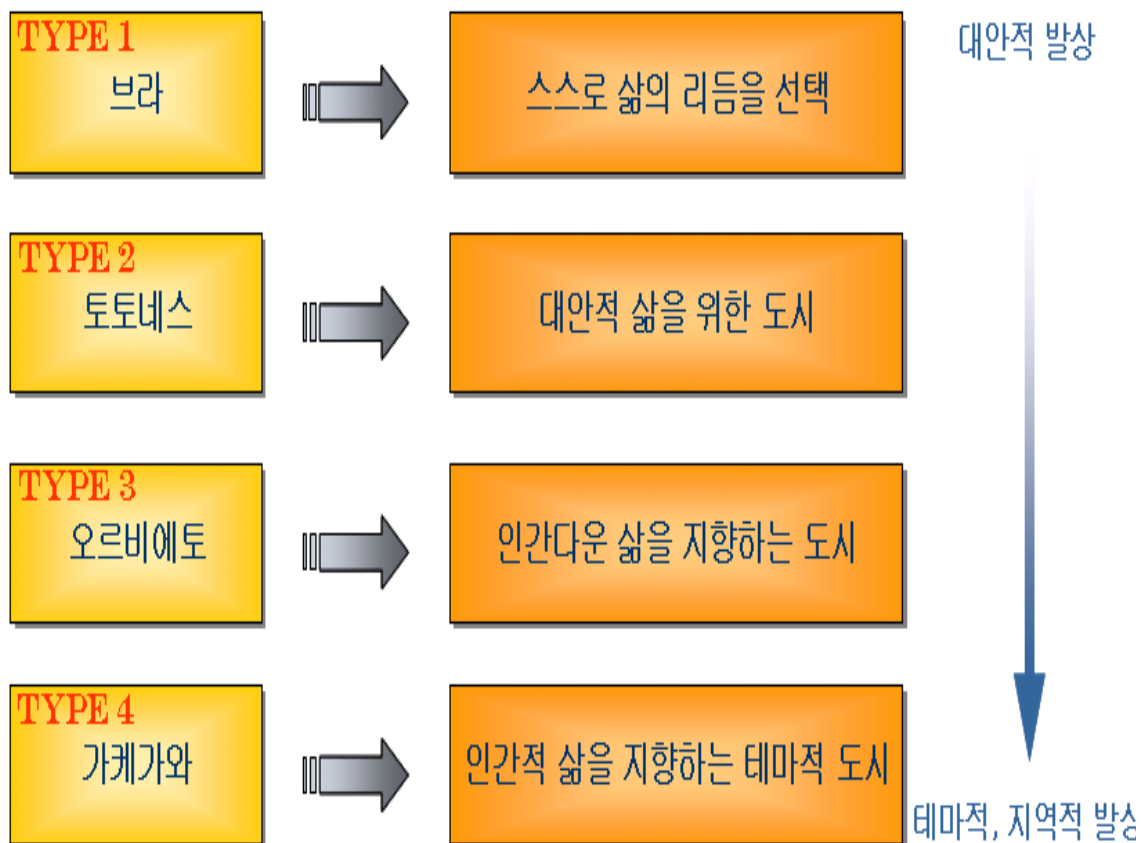
[그림 2] 일본 가케가와시의 슬로시티 운동

해외 웰빙시티



5) 웰빙도시의 추진 동향

- 브라에서는 “스스로 삶의 리듬을 선택하는 도시”, 토트네스는 “대안적 삶을 위한 도시”, 오르비에토는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도시”, 카케가와와 “인간적 삶을 지향하는 테마적 도시”를 추진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소재에 의한 “대안적 발상”에서 테마에 의한 “지역적 발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그리고 이러한 소재 또는 테마라는 것은 지역의 고유한 색채, 고유한 자원을 갖고 움직이고, 그것이 주민의 삶과 건강에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남



[그림 3] 웰빙시티의 테마 및 발전 동향

6) 웰빙도시의 추진 특성

○ Non Tourism

- 선진도시의 사례를 토대로 보면 웰빙시티는 관광객의 유치보다는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성이 발견됨

○ Philosophical Idea

- 또한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 보다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기초한 새로운 삶과 생활의 여유를 통해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이 발견됨

○ First Industry

- 이를 위해 선진웰빙시티에서는 무엇보다 1차산업, 자연, 문화(전통적 소재)를 중시하는 특성이 보임

○ Sustainable Policy

- 또한 이들 정책은 하나의 원칙을 통해 지속화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됨. 브라는 아날로그식 삶이 이어져 왔고, 가게가와는 생애학습이란 테마를 지속화시킨 개념으로 슬로시티가 발전하고 있음

IV. 국내웰빙의 역사와 특성

1. 국내웰빙의 역사

1) 2002년 초 안단테문화의 소개

- 국내에서는 2002년 초 문학·교양 잡지 등에서 일명 안단테 문화로 불리어지는 느림의 미학이 소개되기 시작했음
- 카를로 페트리니의 “슬로푸드(2002)”, 김종덕의 “슬로푸드서 발견하는 삶의 기쁨(2002)”, 이영표의 “느리게 산다는 것에 따른 생활 환경과 디자인 변화에 관한 연구(2002)” 등이 이때 발표되었음

2) 2002년 말 용인 느린문화학교 개교

- 초고속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느림의 문화’를 펴뜨리기 위한 작은 움직임으로 2002년 말에는 용인에 “느린문화학교”가 개교
- 느린문화학교는 “느리지만 올곧고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실천한다.”는 슬로건 하에, 연극, 그림, 글쓰기, 한자, 생활법률, 발마사지의 6개 강좌가 개설되고 있음

3) 2002~2003년 매스컴에서 웰빙의 부각

- 2002년 후반부터는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웰빙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부각되기 시작했음
- [week&TV] “밥상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이탈리아의 슬로푸드운동을 재조명하며 식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를 비롯해, 슬로 하우스/에이징/웨어, 웰빙族의 생활, 웰빙상품

등이 집중 조명되었으며, 이러한 선진국의 동향을 토대로 국내의 한옥, 한복, 한지, 그리고 뉴트라슈티컬¹⁾ 등이 재조명되었음

- 기업에서 웰빙상품(식품, 의류, 가전제품)이 취급된 것도 이 때 부터임

4) 2003~2004년 민간 및 자치단체에 의한 웰빙사업의 추진

- 2003년 말 부터는 기업의 웰빙상품 생산에 더해 민간 및 자치단체에 의한 웰빙프로젝트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
- 국제적 명산단체 수선재가 2000년부터 명상사업을 본격 실천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2004년 3월에 휴양형 펜션 횡성 레이크빌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아직 계획 또는 시작단계에 있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웰빙사업이 추진되고 있음(경상북도 웰빙타운 조성계획 추진, 경주시 명상산업단지 조성계획 추진, 영암군 기상품화 통한 관광객 유치전략, 남원 향기의 산업화, 남도 웰빙사업 선포)

5) 2004~현재 웰빙타운·웰빙시티의 추진

- 2004년 후반부터는 음식문화를 소재로 한 웰빙타운 및 본격적인 웰빙시티가 계획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4년 6월 ‘슬로우 푸드(Slow Food)’ 체험장 10곳을 지정했으며, 약 80억원을 들여 이들을 정비해 2004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임
- 한편 2004년 11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남 태안군에서 “웰빙도시”가 수립되었음. 『태안해양웰빙시티 발전구상 및 전략(2004)』로 명명된 이 계획은, 기존의 “웰빙사업”을 “웰빙시티”로 발전시킨 첫 기획이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1) Nutrition(영양)과 Pharmaceutical(의약품)의 합성어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말함(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군으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2005년 2월에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경남 하동군에서 휴양으로 특화된 “웰빙시티”가 기획되었음. 『웰빙휴양시티하동 특화전략(2005)』이라 명명된 기획(일명 “W 프로젝트”)은, 이미 본격 추진되고 있음

<표 4> 지자체 웰빙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내용
경북명상웰빙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문경읍 고요리 일대에 16만여㎡부지 조성, 2004년~2008년까지 760여억원의 사업비 투자 · 명상센터와 명상 음악연구소, 명상 치료센터, 명상테마 죽림온천, 황토방 숙박시설과 기공한방요양원, 자연요법요양원
경주명상문화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500억원 규모 · 불교의 다양한 수행과 기도를 통한 정신치유 방법의 콘텐츠를 개발
영암 기 문화 콘텐츠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1천억원 규모 원출산 자락 20만평 · 기 과학 연구소, 체험관, 수련관, 전시관, 교육관, 상품관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전남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 남도음식나들이, 궁중진상품 남도음식전, 전통차와 사찰음식전, 남도요리명장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경기도 슬로푸드체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슬로우 푸드(Slow Food)’ 체험장 10곳을 지정/운영 · 1개 슬로푸드 특구(연천-청산김치) · 2개 슬로푸드 체험장(평택-사찰음식, 안성-전통장류) · 7개 슬로푸드 읍(포천/가평/파주/양평/여주/이천/화성)
태안군 해양웰빙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구상 및 전략 수립(2004. 11.) · 2005년 4월 웰빙시티 선포 예정
하동군 웰빙휴양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구상 및 전략 수립(2005. 02.) · 사업 추진 중

6) 국내 웰빙의 트렌드

- 국내에서의 웰빙은 서구의 “웰빙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에 의한 “웰빙상품”이 추진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에 의한 “웰빙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음

- 이들 사업은 “웰빙컨텐츠개발”, “웰빙체험단지조성”, “웰빙도시 기획”의 3단계로 발전해 오고 있음
- 아직까지 본격적인 “웰빙도시”로는 발전하고 있지 않지만, 서구에 비해 웰빙의 사회적 침투가 매우 빨리 이루고 지고 있어, 금후 웰빙도시는, 웰빙체험사업 등과 함께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또 앞으로 전개될 4기에 있어서는 웰빙도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될 것에 있어, 지역에 부합된 진정한 웰빙의 추진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됨

<표 5> 자치단체 웰빙사업의 단계별 특성

획기	테마	특성	사례
제1기 (2002-2003)	· 웰빙컨텐츠개발	· 지역의 고유한 상품을 소재로 명상, 치유, 자연요법 등을 지역 웰빙문화상품으로 개발	· 경북명상웰빙타운 조성 · 경주명상문화산업단지 · 영암 기(氣)문화 콘텐츠 센터
제2기 (2003-2004)	· 웰빙체험단지조성	· 음식을 통해 웰빙을 실생활에 접목 · 지역산업의 특화육성이 주목적	· 경기도 슬로푸드체험장
제3기 (2004-2005)	· 웰빙도시 기획	· 지역전체를 이용한 웰빙라이프 추진 · 웰빙관광을 통한 지역진흥의 추구 ·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목적	· 하동군 웰빙도시 선포(2004. 10) · 태안군 웰빙해양시티기획(2004.11.) · 서산시 웰빙라이프 서산 선언(2005.1) · 하동군 웰빙휴양시티 기획(2005. 2)

2. 국내 웰빙의 특성 및 문제

1) 「대안적 삶」 보다는 「상품 개발」에 주력

- 해외의 선진 슬로시티는 느림의 문화로서 '대안적 삶' 자체를 추구하고 있는데 비해,
- 국내의 각종 웰빙사업은 '웰빙 마인드'를 이용한 상품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임
- 각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토대로, 웰빙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은 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상품개발에 대한 과도한 치중은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웰빙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있고, 이점 기업의 웰빙과 크게 다르지 않음

<표 6> 국내·외 웰빙사업의 차이점 비교

도 시 \ 구 분	여가활용	심신의 건강	느림의 문화	상품화
이탈리아 브라	●	●	●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	●	●	
영국 토트네스	●	●	●	
일본 카케가와	●	●	●	
용인 느린문화학교		●	●	
경상북도 명상웰빙타운	●	●		
경기도 슬로우 푸드 체험장		●	●	●
영암군 기상품화		●		●
향기의 산업화		●		●
남도 웰빙사업		●		●
횡성레이크빌(휴양형 펜션)	●	●		●

2) 기존 「관광」의 연장에서 추진

- 웰빙사업, 웰빙체험장 등은 매우 다양화 테마화 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의 모든 웰빙사업은 「관광」의 연장에서 추진되고 있음
-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웰빙관광의 추진, 그를 통한 주민소득의 증대 및 지역진흥은 “웰빙”이라는 용어가 첨가되었을 뿐 기존의 관광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해외웰빙도시가 성공하고 있는 요인은 “주민의 자주적 삶의 추구”에 있음. 자신들의 “건강한 삶”,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 웰빙도시를 추진해 왔고, 그 결과로서 세인의 관심으로 이어져 지역 및 지역에서 나는 상품 등이 가치를 발현하고 있는 것임
- 현재의 웰빙사업은 이러한 웰빙사업의 본의가 전도되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음

3) 행정적 발의·경쟁적 추진

- 서구의 웰빙생활(Slow Life) 및 웰빙도시(Slow City)의 구축은 주민의 공감대와 합의에 의해 전개된 운동이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전 시민이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라 말 할 수 있음. 시민의 공감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불편 및 지역의 성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력했고, 그 노력 속에 새로운 아날로그 도시가 재생되어 온 것임
- 그러나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부분은 행정적 발의에서 출발하고, 지역간 경쟁의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이것은 행정이 선택 매우 좋은 취지와 방법으로 웰빙도시를 추진한다 해도, 사업이 상당히 불안하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제공함. 왜냐하면, 웰빙도시로의 추진은 기존의 편리성을 버리고, 성장을 제어하는 등 많은 부분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에 있어, 주민적 합의와 참여 없이는 사실상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임

4) 웰빙시티 기획을 통해 본 지역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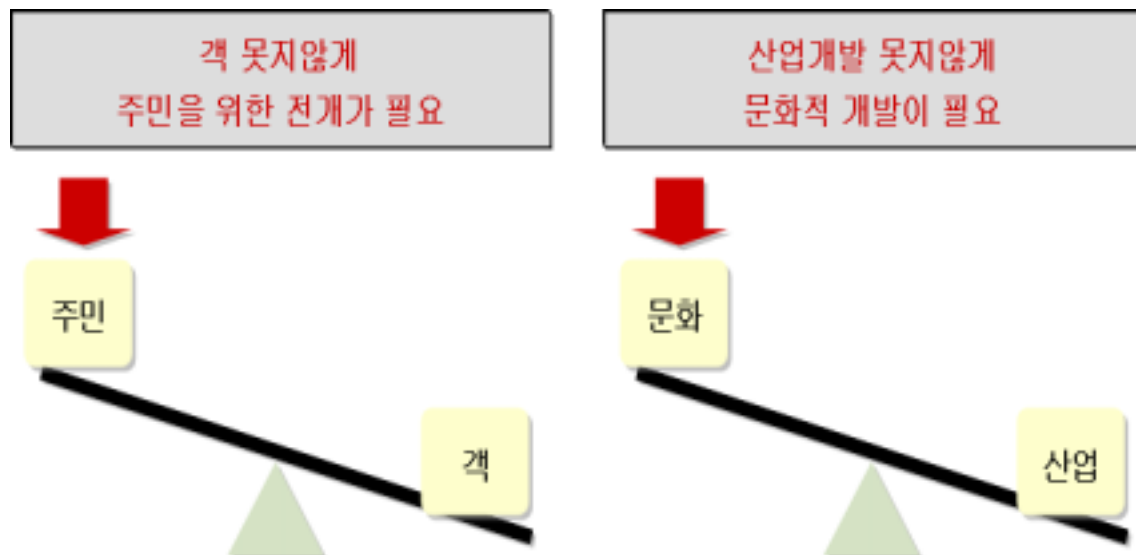
- 지역의 모든 자원이 웰빙적 테마로 발전(테마의 다중성)
 - 웰빙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역의 모든 자원 및 부서별 업무 등이 여가 없이 웰빙적 테마로 발전하고 있음
 - 상황이 이러다 보니, 본래의 정해진 테마와 각 사업 간의 연계가 약해져, 전반적으로 전체테마가 퇴색되어 지는 문제가 발생
 - 즉 지역 또는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판단이 명확히 이루어 지지 못함으로서, 사업 또는 테마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임
- 주요 웰빙소재는 주민생계와 직결(순수웰빙도시 추진의 어려움)
 - 지역의 기반적인 웰빙자원은 주로 농특산물로 귀결되고 있으나, 이들 자원은 대부분 새로운 판로개척이 절실한 형편임
 - 또한 이들 작물들은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어, 현실적으로 서구형의 순수한 웰빙도시추진은 어려운 형편임
 - 즉 순수웰빙과 지역산업 육성(관광)이라는 상호 다른 현실 속에 “웰빙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것임

-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담은 만한 경험 및 그릇의 빈곤
 - 웰빙도시 기획에서는 기존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참여와 주민운동의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현실적으로도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웰빙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에 몰두해온 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만한 경험이 적고, 그들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확보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주민 프로그램에서는 주민의 교육과 실천항목만이 거론되고 있는 형편임. 그러나 주민은 지역민으로서의 긍지와 지역사랑의 마음이 전제될 때 주민의 참여도 가능한 것에 있어, 시스템적인 유도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의욕이 앞서는 사업추진
 - 자치단체에서 웰빙도시의 추진은 지역의 발전의 획을 긋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공직자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은 매우 부정기적인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토론의 시간과 사업의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예산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그로 인해 짧은 기간과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 충분한 검토 없이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함(사업기획과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 자주 발생함)
 - 그 결과 연구자, 행정, 주민, 어느 한쪽도 미흡한 채 일이 마무리되고, 상호적인 아쉬움이 남음

V. 결론 및 제언

- 서산시는 지난 2005년 1월, 새로운 웰빙도시 구현을 위해 「웰빙라이프서산」을 발표한바 있음
- 여기에는 명확한 목표와 주민을 위한 전략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또한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어, 남다른 기대를 갖게 함
- 그러나 「웰빙라이프서산」 선포문에 나타나고 있는 추진 목표와 전략 등을 볼 때, 다소 우려의 마음도 생김. 앞서 검토한 기존의 웰빙도시와 마찬가지로, 전략이 너무 양적인 면(물리적 계획)에 치우쳐 있고, 주제가 분산되어 있으며, 주로 행정적 사업에 경사되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인식과 그간 웰빙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웰빙라이프서산」을 효과적인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 또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 「客」 못지 않게 「住民」을 위한 전개
 - 서산시가 진정한 웰빙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객(관광객)」 못지 않게 「주민」을 위한 전개가 필요함
 - 주민의 웰빙적 삶을 위한 사업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 주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보장되어야 함(예, 지역사랑운동→지역실천운동→웰빙운동)
 - 또한 주민이 함께 하는 「웰빙라이프서산」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Index 또는 Pilot사업이 추진되어야 함(例, 시민의 숲, 마을농장, 그린투어리즘대학 등)

- 「상업적 코드」 못지 않게 「문화적 코드」를 기초로 한 전개
 -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진정한 웰빙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적 코드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국내에서는 너무 상업적인 상품개발에 주력하여 그 균형을 잃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상매(상품개발과 판매)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화된 사상 및 자원을 통해 지역에 부합된 테마를 설정하고, 각 사업 및 자원을 이러한 테마로 재포장하는 기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서산시가 추진전략으로 내세운 100대 시책을 정신적 풍요, 자연적 생태환경, 건강 100세, 행복/만족, 풍족한 생활로 구분하기 보다는, 무엇을 중심으로 정신적 풍요가 발생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풍족한 생활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 부여된다면(테마가 주어진다면), 지역사상과 연계된 개발이 이루어져 그 사업이 갖는 가치와 효용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것을 추진하거나 수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설득력 및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 그들의 참여와 내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역자원을 원시적인 형태의 상품개발에 멈추지 말고, 상품개발의 과정 등을 교육과 체험으로 연계시킨다면, 지역자원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원을 이슈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동군의 경우, 지역의 황토 및 대나무 등을 이용한 토피어리 산업이 주부들을 위한 웰빙사업으로 채택하고 있음. 이것은 지역자원을 웰빙부업으로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고 참여시킴으로서 지역자원을 자연스럽게 어필하고자 하는 전략임)

○ 지역의 인적자원 및 외부 지식정보를 적극 활용

- 웰빙도시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재정이 수반됨. 또한 웰빙수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에 있어, 수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 반면 웰빙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웰빙상품을 소재로 하는 기업 등은 현재 상당히 팽배해 있고, 웰빙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도 높음. 따라서 이들 지역의 인적자원 및 외부 인력의 아이디어 또는 사업계획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하동군은 철도청과 연계해 특별전용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한편, 토피어리협회 및 관광정보회사 등의 제안서를 접수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연대를 추진해 가고 있음
- 한편 태안군은 화훼농가조직 및 어촌조직, 지역원로 등을 적극 활용해 그들과 관련한 웰빙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각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행정의 역할과 준비

- 행정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체계이지, 개별사업의 실행주체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결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추진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초기에 필요한 행정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주민 컨센서스의 형성

- 우선 행정에서는 주민이 어떤 상황과 웰빙도시에 대해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의 컨센서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함
- 주민의 총의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조직 또는 계층별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냉정히 검토·정리할 필요가 있음

② 전담부서 결성

- 웰빙도시구축을 위해서는 민의가 수렴되어야 하며, 지역여건이 정리되어야 하고, 연구기획뿐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 설득과 홍보 등도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기존의 부서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별도의 전담팀이 조직되어야 함
- 전담팀의 초기 업무는 크게 웰빙여건 및 지역자료 분석·정리, 주민조직 및 자문회의 개최, 연구기획의 발주, 주민 홍보의 4가지임

③ 체계적인 연구기획

- 이 중 연구기획은 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성공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신경써야함
- 우선, 연구기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존 웰빙도시기획에서는 의욕이 앞서 충분한 절차 없이 추진되다보니 시의회와의 마찰이 있기도 하고, 또한 임시방편으로 조달된 예산에 의해 촉박하게 연구가 수행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바 있음
- 특히 연구기획에 있어서는, 짧은 연구기간 동안, 지역에서는 실행계획까지 포함되길 원하는 반면, 연구진 입장에서는 무엇을 소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소홀해 지는 경향을 보인바 있음. 따라서 웰빙도시기획에 있어서

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충분한 기간과 예산이 수반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나누어 수행하는 방법이 제안됨(예, ①“지역정체성연구”와 “전략구성”, ②또는 “기본구상”과 특화전략”)

- 또한 웰빙도시기획에 있어서는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도출되어야 함으로 많은 자문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향토전문가, 주민 및 기업대표, 외부 웰빙전문가 등을 대거 포진한 정책자문단의 결성과 이들과의 주기적인 미팅이 필요함.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역공무원이므로 실과장 또는 계장을 주축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상시적인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함

○ 웰빙도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확립

주민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소스의 개발

- 「웰빙(Well-being)」은 한때의 “유행(流行)”이 아님. 개발시대 뒤에 환경시대가 도래했듯, 환경시대 뒤에 찾아온 새로운 패턴이며, 인간 본연의 삶에 가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旅情)이라 볼 수 있음
- 환경시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도시들은 환경도시로 거듭나 그 가치를 발현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서는 별반 소득 없이 과거와 같이 지역의 정체성만을 잃어가고 있음.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웰빙도시(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속적인 노력이라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것은 “주체와 대상”. 도시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주민과 행정, 지역과 관광객 누구나 필요한 것이었음. 웰빙(well-being)은 이에 비교하면 사치스러운 것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웰빙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할 진정한 것이

며, 나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고 수혜를 받는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됨. 이것이 「웰빙도시」와 과거 「환경도시」와의 차이
라 본인은 믿음

- 따라서 웰빙도시는, (혹여 지역여건 상 “웰빙관광도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해도) 그 주체는 반드시 “주민”이어야 하며, 웰빙도시의 방향은 주민본위의 선택이어야 함. 따라서 웰빙도시에는 주민의 공감대에 입각한 기획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웰빙도시의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음
- 서산에서 이러한 주민본위의 웰빙도시정책이 성공(“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의 하나는 「웰빙라이프 서산」을 위한 정신적 선언문(宣言文)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천조례(實踐條例)임
- 기존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행정적 편의차원에서 행해온 선언과 조례를 말하는 것은 아님. 주민의 공감대에 기초한 선언과 조례임. 주민 모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사인을 받은) 선언과 조례가 될 때, 「웰빙라이프 서산」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음
- 지금껏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한 이 일을, 서산에 기대해 봄

참 고 문 헌

- 김종덕(2003),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 (2003), 「슬로푸드」.
- 박구원·가부다카요시(2004), 「지역진흥전략으로서의 그린투어리즘
대학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발표논문집(55).
- 박구원·정준(2004), 「태안해양웰빙시티 발전구상 및 전략」 태안군.
- 박구원·정준(2005), 「웰빙휴양시티하동 발전구상 및 특화전략」 하동군.
- 서산시(2005), 「웰빙라이프 서산」.
- 서산시(2005), 「웰빙라이프(Well-being Life) 서산 구현 추진 기본계획」.
- 이영표(2002), 「느리게 사는 것에 따른 생활환경과 디자인 변화에 관한 연구」.
- 都市観光で地域づくり會(2003), 「都市観光で地域づくり」學藝出版社.

서산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I. 서산과 내포

- 그동안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더디었으나, 2001년 12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신산업지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확정으로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체계적 개발의 전기 마련

1. 입지적 측면

- 한반도의 중서부, 충청남도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옛부터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내륙으로 전파하는 문화의 중심지 역할 수행
- 조선시대 길지, 내포 : 내포는 금북정맥(錦北正脈)에 의하여 주요 역로(驛路)에서 벗어난 지역인 까닭에, 병란(兵亂)을 당했을 때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길지(吉地)로 평가를 받는 고장임



2. 역사적 측면

- 조선시대 길지로서 내포 서산은 20세기 이전에는 유통을 전담하는 뱃길과 포구로서 20세기 이후에는 서해의 내만을 간척하여 곡창지대로서 가로림만의 생태적 자원과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자원을 보유
- 서산의 뱃길과 포구 : 20세기 이전 물자 유통을 전담하다시피했던 뱃길로 보면, 내포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던 삼남(三南)에서 서울을 잇는 뱃길에 속하였고, 서산에도 삼길포, 황금산, 고파지도, 호리, 명천포, 난지도 등 뱃길과 관련된 유적이 곳곳에 산재함
- 간척사업의 영향 : 20세기 이후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서해의 내만(內灣)이 대거 농경지로 탈바꿈하였고, 서산지역에서도 대호지방조제와 천수만방조제에 의하여 내만(內灣)에 위치한 옛 포구들은 대부분 내륙의 농촌으로 변화함
- 가로림만 : 현재 서산 관내에는 가로림만이 남아 있으며, 최근 갯벌 등 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반의 관심을 끌고 있음
- 가야산¹⁾과 서산 : 서산의 동쪽에 위치한 가야산에는 서산 마애삼존불로 대표되는 내포 불교유적 등 수많은 문화자원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음

3.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서산

- 서산의 역사문화자원은 대체로 해양 관련 자원, 가야산 주변 유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특히 북부 연안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가로림만을 제외한 해안유적은 훼손 또는 기초조사가 미흡한 관계로, 가야산 주변의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선정

1) 가야산은 내포 권역을 아우르는 중심 산악으로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 가야산을 경계로 북쪽과 서쪽은 서산시, 동쪽은 예산군, 남쪽은 홍성군이 경계를 나누고 있으며,

II. 서산시의 역사문화유적

1. 서해 뱃길과 관련 유적

- 해로(海路)의 중요성 : 교통수단과 도로망이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시대까지 대규모 물자는 거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었고, 그런 까닭에 바다와 강은 현재의 산업도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음
- 서울과 해로 : 한편 고려시대 개경을 수도로 정한 이후, 특히 경기만은 많은 물자가 집결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화되고,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화·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강화됨
- 삼남과 해로 : 조선시대 중앙정부와 서울 주민의 주요 물산의 대부분은 삼남(三南, 즉 호서·호남·영남)으로부터 공급되었으며, 삼남에서 서울 경강(京江) 사이 뱃길은 큰 관심사가 되었는데, 현 충청남도 서해안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 위치한 해양 교통의 요충임

전통시대 항로의 특징

- 20C 이전 뱃길은 외해(外海)가 연안을 따라가는 항로였으며, 특히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세곡(稅穀)을 운송하는 조운선(漕運船)은 바다로 돌출한 반도와 섬 사이를 빠져나가는 방식을 택하였음
- 동해에는 배가 통하지 않는다는 「택리지」의 기록, 강화도의 손돌목, 내포의 관장목과 안면도의 거친 물살 또는 풍랑을 피하기 위하여 운하를 굴착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음

- 해양 방어의 측면 : 충남 서해안은 서울을 방어하는 막바지 저지선에 가까웠음. 북으로는 장산곶 일원, 남으로는 태안반도 일원이 뚫리면, 곧바로 강화도와 교동도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 중국과 이어지는 북쪽보다는 왜구의 침입로가 되는 태안반도 유역과 강화도의 관계는 입술과 이의 관계에 비유되기도 했음²⁾
- 관방시설의 입지 : 서해안에는 교통과 군사적 목적을 겸하는 국가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선박 운행의 감시와 바다의 해적을 살피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돌출한 지형을 선택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친 풍랑에 대비하고, 군사시설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시설은 돌출된 반도의 후면에 위치함³⁾
- 암초와 관방시설 : 반도로 돌출한 해역은 암초가 발달하여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으며,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찰이나 신당(神堂)도 그와 관련된 유적⁴⁾

2) 이와 관련한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우선 충청도로 말하면, 충주(忠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황간(黃杆)·영동(永同)·추풍령(秋風嶺) 등지의 파수하는 형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주(公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금강(鎭江) 일대는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며, 홍주(洪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내포(內浦)나 연해(沿海) 등지를 모두 방어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은 간단하고 공은 많은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1594) 9월 16일 辛卯條>: '... 유성룡이 아뢰기를, "... 조종(祖宗) 때에는 진관(鎭管)을 네 곳으로 나누고, 홍주(洪州)는 해적(海賊, 바다로 오는 적)을 막고 공주는 호적(湖賊, 호남으로부터 오는 적)을 막도록 했는데 유근(柳根)이 충청(忠淸)에 영(營)을 설치한다 하니, 그 뜻이 좋습니다. ..." 하였다. ...'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28일 戊午條>: 왕이 <식사청에 나아가> 공홍 감사(公洪監司) 윤효정(尹孝全)을 인견하였다. ... 윤효정이 아뢰기를, "... 공주(公州)·홍주(洪州)·청주(淸州) 세 고을은 양남(兩南, 즉 호남과 영남)의 요충지이며, 게다가 홍주는 양포(兩浦)의 인후(咽喉)인데, ..." 하였다. ... 『광해군일기』 권80 6년 7월 17일 丁卯條, 육로를 통한 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주와 청주를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에 유성룡과 잠곡(潛谷) 김유(金瑬)이 제기하고 있다. 「만기요람」 軍政編 4, 關防 忠淸道條 柳成慶所論; 同 金瑬所論.

3) 수영(水營)과 같은 기점은 큰 바다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져지만, 진성(鎭城)은 보통 반도 끝자락 후면에 위치함

4) 조선후기 내포의 뱃길(『增補文獻備考』 권35, 輿地考23 關防11 海路1 西南海路條.

1) 평신진(平薪鎭)

- 연혁 : 현재 '생길포'[三吉浦]에 이웃한 반곡 마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며, 원래 독곶리 항금산[亢金山 또는 黃金山]에 설치되었다가, 망일산(望日山) 아래 마장(馬場)을 축조하면서 겸감목관(兼監牧官)이 되었고, 임진년(壬辰年) 삼길산(三吉山) 아래로 옮겨진 것으로 됨⁵⁾

동쪽에 지표가 되는 지점	서쪽에 지표가 되는 지점
左夾 大小離知島·平薪鎭 自茂致島至此 約230里 (당진 석문면 난지도리) (당진 석문면 난지도리) (서산 대산읍 화곡리 반곡)	右夾 方伊島·大防島·呂防島 自茂致島至此 約250里 (미확인) (태안 원북면 방갈리 대방이) (미확인)
左夾 黃金島·萬大嶼·倉浦 (서산 대산읍 독곶리 황금산) (태안 이원면 내리 만대) (태안 이원면 관리 창말?)	右夾 加五里島·花似島* (태안 원북면 방갈리 대방이 외 4섬)** (미확인)
左夾 喬津浦·分至草·所斤浦鎭 (태안 원북면 방갈리 갈머리?) (태안 원북면 방갈리 분점도?) (태안 소원면 소근리)	右夾 黑島·買諺島·官長嶼 (태안 근흥면 가의도리 黑島[거무섬]) (태안 근흥면 가의도리) (태안 소원면 파도리 앞바다)
左夾 葛項島·安典鎭·麻島 (태안 소원면 파도리 남단)*** (태안 근흥면 정죽리 안흥) (태안 근흥면 정죽리 마도)	右夾 鼎足嶼·巨文嶼·隱嶼 (태안 근흥면 신진도리 정죽도) (미확인) (태안 근흥면 가의도리 龜島)
左夾 竹島·鏡島·鏡草 (미확인) (태안 남면 거야도리 거야도?) (미확인)	右夾 三島·巴助島·狎喜島 (태안 남면 거야도리 삼섬?) (미확인) (미확인)
左夾 安眠島·項介草·外島 (안면도) (태안 안면읍 신야리 項浦) (태안 안면읍 송언리 外島)	右夾 凡巨島·治島·杖鼓島 (미확인) (보령 오천면 삼시도리 장고도 야표곶?) (보령 오천면 삼시도리 장고도)
左夾 涉浪嶼·元山島 (보령 오천면 원산도리 서란도) (보령 오천면 원산도)	右夾 故道島·師是島 (보령 오천면 삼시도리 古代島) (보령 오천면 삼시도리)

※ 상단 : 《증보문헌비고》의 원문, 하단 : 현 행정구역

* 花似島 : [대동여지도]에는 태안 소원면 파도리 서안의 섬으로 되어 있으나, 표기상의 착오로 보임.

** 대방이를 비롯한 5개의 섬은 어민들이 오형제섬이라 부르는 어장이다.

*** 葛項 : [태안지도](규10422, 1872년 간행), 199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참조.

- 5) 謠傳 大山而附於瑞山 至某年設鎭於亢金山(下)矣 又於某年移設兼監牧官築馬場於望日山下 卽今舊鎭是也 再去壬辰又移鎭三吉山下 卽今本鎭 是也. 『충청도읍지』(영조-현종 연간) [平薪鎭誌] 沿革條, 동일한 내용이 『湖西邑誌』에도 실려 있다. 원문 가운데 ()은 『호서읍지』임, 『湖西邑誌』 「平薪鎭誌」 沿革條, 이와 관련하

- 현황 : 정조 18년(1794) 전후로 한 시기에는 행정편제에서 별도의 군사구역으로 운영되기도 했는데,⁶⁾ 그 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음⁷⁾
- 기능 : 독진(獨鎭)이었던 평신진은 조운선에 대한 호송 책임을 맡았는데, 소근진성과 함께 매년 번갈아서 경기 지방의 수군에게 조운선을 인계하였음⁸⁾
- 의례장소 : 망일암[望日庵, 지금의 望日寺]와 해월암(海月庵), 항금산(亢金山)의 당산 등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여 『속중실록』에는 亢金鎭을 平薪으로 옮기고 平薪鎭使로 이름을 바꾼 시점이 숙종 37년(1711)으로 되어 있다. 이는 忠淸道巡撫使 李晩成과 監司 洪重夏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속중실록』 권50, 숙종 37년 5월 28일(병진)조, 이를 고려할 때 평신진이 삼길산 아래로 옮긴 壬辰年은 영조 48년(1772) 또는 순조 32년(1832)이 된다.

- 6) 이러한 점은 安興鎭이나 所斤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군현 내에 별도의 특수구역이 설치되어 백성들을 관할하였던 탓에, 『실록』 등의 기사에 수령과 鎭使 등이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
- 7) 『여지도서』에도 평신진의 현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平薪鎭 在郡北距70里 鎭使武從3品 監牧官司儒寺所屬 鎭使水營所屬 代將1 旗牌官21 缸5隻 軍兵97名 能槽101名 鎭吏15名 知印2 使令12. 현재 대산읍에 속하는 평신진에 속하는 洞里는 『湖西邑誌』(18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金生洞, 獨申-烏之-平薪-竹葉里, 其隱申이 甲寅年 分籍 때에 평신진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湖西邑誌』(1895) 瑞山郡 坊里條, 이원면 가운데 평신진에 속한 지역은 현재의 내리 부근이다. 『輿地圖書』 瑞山郡 鎭堡條, 『정조실록』에는 참사가 관할하는 大山-梨園-倉宅 3목장과 서산-태안-면천 3고을의 軍籍을 상호 조정하고 있다.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3월 6일(계사)조, 이와 관련하여 『忠淸道邑誌』(영조~현종 연간)와 『湖西邑誌』 「平薪鎭誌」에도 '正廟 甲寅年에 마필을 南陽으로 옮기고, 또한 籍을 나누고 監牧官을 과하였다.'고 하였다. 初以監牧官兼 轉至正廟甲寅 移馬南陽 又爲分籍 罷監牧官. 대산목장의 옛 터가 정순왕후의 생가 경주 김씨 집안에 사패지로 내려졌다고 하는 바, 정조 18년의 조치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위의 사실이 맞다면 『충정도읍지』는 정조-순조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8) 『忠淸道邑誌』(영조~현종 연간)와 『湖西邑誌』에 의하면, '所斤鎭과 매년 번갈아가면서 지행하는데, 安興浦口로부터 楓島까지 호송하여, 京畿의 差員과 교체한 후에 돌아오며, 交付文狀은 戶曹에 올린다.' 하였다. 稅船大渡送 與所斤鎭 間一年輪迴舉行 自安興浦口渡行至楓島 與京畿差員 交替後回還 交付文狀呈于戶曹 格軍14名 每名給代3兩 水營會減 ...

구분	『忠清道邑誌』(英祖~憲宗연간)	『湖西邑誌』
관할 구역	大山面 13洞里(元戶 767戶, 男丁 1,650口, 女丁 1,715口) 梨園面 8洞里(元戶 233戶, 男丁 500口, 女丁 505口) 古屬泰安 倉宅面 3洞里(元戶 172戶, 男丁 345口, 女丁 380口) 古屬 沔川	大山面 13洞里 (이하 누락)
幅員	大山面 東西 或15里 或20里 南北30里 梨園面 東西 或7,8里 南北20里 倉宅面 東西5里 南北15里	大山面 東西 或15里 或20里 南北30里 梨園面 東西 或5里 或7,8里 南北20里 倉宅面 東西50里 南北15里
兵船	一防艇 1隻, 二防艇 1隻, 卜物艇 1隻, 伺候艇 2隻	冬字一防艇 1隻(長9把 廣9尺), 冬字二防艇 1隻(長9把 廣9尺), 卜物艇 1隻(長7把 廣8尺) 10年新造 3年改製
吏屬	時任吏: 吏房 戶房 禮房 兵房 工房 刑房 軍餉色 舟師色 保軍色 均役色 戶籍色 承發 梨園色 倉宅色 護送色	時任吏: 吏房 戶房 禮房 兵房 工房 刑房 軍餉色 舟師色 保軍色 均役色 戶籍色 承發 梨園色 倉宅色 護送色 在外吏 時存10人 無定數
通引	無定數	無定數
使令	使令: 元額 20名 每番 5名式 官奴婢: 無定數 各面主人 8名 山直 5名 沙工 3名	使令: 元額 20名 每番 5名 官奴: 無定數 官婢: 時存3 無定數 各面主人 8名內 4名使令 4名山直 山直 5名 沙工 3名
軍總	水軍 710名, 屯牙兵 354名, 舟師軍 233名, 新選軍 60名	水軍 710名, 屯牙兵 354名, 舟師 233名, 新選軍 60名
公廨	客舍 5梁5間, 外東軒 9間半, 內東軒 9間, 行廊 3間, 馬廄 3間, 屯庫 5梁5間, 火藥庫 1間, 內中門 1間, 戶籍庫 5間, 東門 1間, 軍餉庫 4梁4間, 軍器庫 4梁4間, 軍官廳 5梁5間, 作廳 5梁6間, 使令廳 6間, 官奴廳 4間, 外三門 5梁3間, 紅所待變亭 5間, 六物庫 6間, 梨園倉 17間, 倉宅倉 8間, 內三門 3間	客舍 5梁5間, 外東軒 4梁7間, 內東軒 6間, 行廊 3間, 屯庫 4間, 火藥庫 1間, 戶籍庫 1間, 東門 1間, 軍餉庫 4間, 軍器庫 3間, 軍官廳 5梁5間, 作廳 5梁9間, 使令廳 6間, 奴房廳 草家4間, 外三門 5梁3間 2層樓, 梨園倉庫 13間, 倉宅倉 8間, 內三門 3間
賦稅	三面合田 146結 98負 8束 ... 畓 227結 14負 8束 ...	大山面 元田 93結 67負 4束 畓 156結 78負 4束 梨園面 元田 35結 81負 9束 畓 60結 10負 倉宅面 元田 17結 49負 5束 畓 27結 14負 1束 合田 146結 98負 8束 ...
- 기타 생략 -		

* : 평신진의 선박을 兵船에서 防船으로 바꾼 것은 숙종 41년(1715)이다.⁹⁾

9) 서해 포구가 대개 그렇듯이 포구의 퇴적에 의하여 兵船을 운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防船으로 바꾸는 조치가 취해졌다. 肅宗 41年 是時 戰船漸失舊制 難於運用 且沿海船艙 非潮漲無以移動 議者 以爲戰船不如兵船 判尹閔鎭厚請 擇諸道船艙最便處 仍置戰船 其餘戰船改作兵船 於是詢于諸道水使 則...忠清水使 以爲舒川韓山林川三郡及平新鎭船艙 皆不便 其戰船可改爲防船 ...上從之. 『增補文獻備考』 권120, 兵考12 舟師條. 『萬機要覽』에는 兵船과 防船이 함께 배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平新 防船 1, 兵船 1, 伺候船 2. 『萬機要覽』 軍政編 4, 舟師 (公忠水營) 公忠水使條.

2) 파지포(波知浦)

- 파지포의 원 위치는 지금의 고파지도로서, 그 지명 또한 ‘옛 파지島營’이 있었던 데에서 유래하며, 조선 후기까지 수군만호가 주둔하고 石城이 축조될 정도로 중요한 거점이었던 듯함¹⁰⁾

3) 창리와 난지도

- 기타 : 천수만의 창리는 조선시대 주사창(舟師倉)이 있었고, 조운로상의 힘로로 유명한 난지도는 한말 의병의 거점이었음

4) 굴포운하

- 역사적 배경 : 내포 뱃길 가운데 안흥량은 신진도(新津島)와 마도(馬島)를 거쳐 관수각(官首角)과 가의도(賈誼島)에 이르는 해역(海域)으로 암초가 많고, 또한 좁은 수로로서 조류가 빠르며, 간만의 차가 커서 선박 운항이 어려워서¹¹⁾ 조수의 차가 심하지 않은 밀물을 기다려서 건넜다고 함¹²⁾
- 위치 : 천수만방조제 축조 이전 태안반도 중간인 남쪽 천수만(淺水灣)과 북쪽 가로림만(加露林灣) 사이의 폭은 매우 좁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태안읍 인평리, 도내리와 서산군 팔봉면

10) 영조~헌종 연간에 간행된 『忠清道邑誌』에는 正德 丙子年(중종 11년, 1516)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周回는 1,307尺, 높이 11尺이고 안에 우물이 1곳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증보문헌비고』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瑞山 … 浦 波知島廢麟城 在北30里 石築 周1,337尺 高11尺 今廢. 『增補文獻備考』 권26, 輿地考14 關防2 城郭條. 瑞山 古波島 중앙 堂山에 있는 각시서낭도 이와 관련된 의례장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태종 연간에는 大山萬戶가 있었으며 大山浦에 兵船을 정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세종 10년에는 大山浦의 병선을 波治島로 옮겼다고 하고 있다.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8월 20일(임신)조;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정월 4일(정해)조; 『세종실록』 지리지 忠清道條. 그러나 지금까지 大山浦의 위치를 비정할 수 없다.

11) 관수각은 관장목[冠丈項 또는 關障項]이라고도 했다. 1872년 간행된 「泰安地圖」(冊10422)에는 관장목이 태안군 소원면 과도리 해변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섬[小島]과 암초[大礁] 사이의 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한편 지평산에 있는 安波寺는 조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건립한 사찰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佛宇條. 주민들과의 면접에 따르면, 관장목과 소원면 모항리 속칭 '유리꽃'에 이르는 해역의 물살이 급하다고 한다.

12)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주민들은 밀물 때에는 '물이 어명명하여 배를 저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송리, 진장리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은 불과 10리 미만이었으며, 높지를 포함하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하였음

- 연혁 :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운하공사는 고려 인종 12년(1134) 때로, 내시(內侍) 정습명(鄭襲明)을 파견하여 인근 군졸(郡卒) 수천 명을 동원하여 10여 리를 파다가 도중에 중단하였으며,¹³⁾ 그리고 공양왕 3년(1391)에는 왜구 소탕에 공이 많았던 종실(宗室) 왕강(王康)의 논의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조수에 밀려온 토사로 메꾸어지면서 다시 실패하였고,¹⁴⁾ 조선 태조 때 최유경(崔有慶)과 남은(南閔)을 현지에 파견하여 살피게 한 바가 있었고,¹⁵⁾ 태종조에 마침내 하륜(河崐)의 발의로, 갑문식(閘門式) 운하공사를 재개 5,000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사 끝에 불과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완공하였음¹⁶⁾

- 운하의 형태와 규모 : 태종 때 완공된 운하는 남북의 고지대 5개소에 계단식 저수지를 축조한 방식인데, 천수만 방향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 끝 지점에 길이 270척(尺), 너비 130척, 깊이 6척의 연못[鑿池]을 만들어 7~8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10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남내방축(南內防築), 그리고 길이 47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남방축(南防築)을 쌓았으며, 또한 가로림만 방향에도 역시 길이 104척, 너비 62척, 깊이 5척의 연못을 만들어 3~4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20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북방축(北防築)을 만들었는데, 두 방향의 연못으로부터 천수만쪽으로는 길이 2,290척, 너비 130척, 가로림만쪽으로는 길이 925척, 너비 50척, 깊이 3척의 물길을 내어 고려조에 완공된 수로[水渠]

13) 『고려사』 권16, 世家 仁宗 12년 秋7월.

14) 『고려사』 권116, 列傳 29, 王康條;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3년 秋7月條;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山川條. 이종영이 지적하였듯이, 고려 예종(睿宗)과 숙종(肅宗) 때에도 굴포운하 개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其在前朝睿王肅王 及乎叔世 皆動民疏鑿 夫見其效.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14일 庚申條.

15) 이 당시에는 암반층 때문에 공사를 포기했었다. 「태조실록」 권7, 태조4년 6월 戊辰條; 同 권12, 태조 6년 10월 乙酉條; 同 乙未條.

16)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1월 丁酉條; 同 권25, 태종 13년 정월 壬寅條; 同 2월 己未條.

와 연결시켰음¹⁷⁾

- 완공 이후의 변화 : 굴포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이 불과 150석(石)을 실을 수 있는 소선(小船)인 관계로, 500석을 싣는 조선(漕船)의 짐을 옮겨 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고, 더욱이 천수만의 수심이 얕아 대형 조선(漕船)이 운하까지 도달할 수 없었으며, 운하 저수지 안에도 암석이 있어서 선박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음¹⁸⁾

2. 가야산과 불교유적

- 내포의 진산(鎭山)¹⁹⁾, 가야산 : 내포 고을의 고을은 대부분 가야산자락을 기대어 있으며, 가야산정에서 내포 전역이 조망되므로, 가야산을 내포의 진산이라 해도 무방한데, 현재 서산시와 더불어 홍성군, 예산군에 걸쳐 있음
- 가야산과 문화유적 : 지역의 명산으로 지목되는 이러한 산악에는 여러 시설들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야산의 경우 바닷길을 따라 유입했던 불교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많음

17)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己未條.

18) 이 후에도 굴포운하에 논의는 그치지 않았다. 곧 바로 하륜은 운하의 대폭적인 개축을 청하기도 했다.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8월 丁未條: 同 丙辰條: 同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그러나 忠淸道都觀察使 李安鼎의 비관 등에 부딪쳐서 결정을 못 내렸고, 공사는 중단한 후 이듬해에 태종이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그러나 막상 논의가 재개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태종 14년 8월에 전라도의 조선 66척이 敗沒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시 하륜이 운하 공사의 재개를 발의하였다.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甲辰條. 태종이 한 때 태안의 治所였던 굴포운하 부근 葦城鎭을 방문했던 길에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丁卯條. 그러나 이 역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굴포운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된 것은 세조조였다. 안흥량에 관한 대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조 7년 좌의정 신숙주의 주장을 좇아, 그를 忠淸道都體察使로 하여, 현지를 살펴보게 한 후 공사를 개시하였다. 『세조실록』 권25, 세조 7년 7월 丁巳條: 同 8월 甲申條. 이 공사는 태종 10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계속되었으나, 계속 수로가 폐위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세조실록』 권32, 세조 10년 3월 丙寅條: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泰安縣 山川條: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 2, 漕轉 漕規 安興掘浦條.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공사 책임을 맡았던 신숙주의 시(詩)가 전해지고 있어, 당시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다. 굴포운하 건설은 현종조에 다시 논란거리가 되었다. 『현종실록』 권15, 현종 9년 8월 癸巳條: 同 9월 戊戌條: 同 9월 乙巳條: 同 권16, 현종 10년 정월 甲辰條: 『승정원일기』 제212책 현종 10년 정월 초6일 庚子條: 同 초10일 甲辰條. 송시열을 필두로 하여 굴포운하의 건설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좌의정 許篈 등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 결국 변절한 점도 끝에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얕은 갯벌 때문에 건설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대신에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 육지에 창고를 건설하여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 진산(鎭山) : 지덕(地德)으로 한 지방을 둘러서 편안하게 하는[鎭護] 산으로서, 고을마다 관아 뒤편에 진산이 있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산성(山城)이 수축되어 있음.

- 마애불의 역사 : 바닷길을 따라 유입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태안 백화산, 서산 운산면 용현리, 예산 삼교읍 용화산 등지의 마애불, 그리고 예산 봉산면 사면석불 등이 대표적인 유적인데, 이 유적들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잃고 금강 유역으로 천도한 후, 제해권을 회복하는 6세기경의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한 국제문화적 성격, 특히 중국의 남북조시대의 불교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던 시기의 영향을 받은 작품
- 대표적인 고찰(古刹) :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사찰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음 (예산군의 수덕사와 가야사지, 서산의 개심사·문수사·보원사지·일락사·간월암·부석사, 홍성의 용봉사와 광경사지)
- 강당골²⁰⁾의 유적 :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와 관련 유적 등이 분포하는데, 불교적 용어에 해당하는 상왕(象王)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음

1)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 가야산의 북쪽 강당골 [일명 '용현 계곡'] 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제의 미소'로 불릴 정도로 백제화된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걸작품으로 꼽힘

2) 보원사지

-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6세기 중엽에 제작된 금동여래불상이 출토되면서 백제시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서산의 태수[富城太守]를 지냈던 최치원(893년 부임)에 의하면, 의상대사를 계승한 화엄 10사(華嚴十寺) 중

20) 강당골의 전설 : 보원사지로 가는 길에 위치한 인바위[印岩]는 전설 속의 상왕이 말[斗] 만한 인장을 숨겨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인바위 곁의 고향이바위와 개천 건너편의 귀바위는 보원사의 흥망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데, 조선시대 읍지에도 그 기록이 있음.

의 하나였음. 고려시대에는 크게 발전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법인국사 보승탑을 비롯한 유적들은 모두 고려시대 중건 당시의 것들로 추정되는데, 화엄종이 약화되기 시작한 고려 무신정권 시기부터 쇠퇴하였고, 1530년~1619년 사이에 폐사됨

- 관련 유적 : 보원사지(사적 제316호), 석조(石槽, 보물 제102호), 당간지주(幢竿支柱, 보물 제103호),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법인국사 보승탑(法印國師寶乘塔, 보물 제105호), 보승탑비(寶乘塔碑, 보물 제106호)

3) 문수사

- 조선시대 명종대왕의 태실(胎室)이 있는 태봉리에 있는 작은 절이나, 1346년에 만들어진 금동아미타불좌상, 1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16나한상, 1774년 제작된 지장보살도, 1892년 김금어가 제작한 신장탱화(神將幀畵) 등이 소장됨

4) 개심사²¹⁾

- 솔향과 재래종 소나무[黃腸木]의 자태가 고운 산사로, 굽은 나무로만 지은 듯한 尋劍堂(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8호), 대웅전(보물 제143호), 靈山會掛佛幀(보물 제1264호), 冥府殿(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4호) 등의 문화재가 있음.

5) 일락사

- 현존 유물로는 고려시대의 양식인 3층석탑이 있으나, 막상 창건연대는 불확실하며, 다만 1649년 해미읍성을 중수할 때 일락사 대웅전을 함께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음

21) 개심사와 경주 김씨 : 특히 왕비와 부마도위를 배출하고 추사 김정희라는 큰 학자를 낳았던 경주김씨와의 인연도 깊은데, 임항조인 김연(金堧, 1494~?)의 계모 황씨의 고향이며, 그녀의 묘역은 개심사의 내청풍에 해당되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 원종 때 개심사를 중창할 때에는 김씨 일문이 대대적으로 참여함.

6) 해미 주변 석불(황락리, 조산리, 반양리)

○ 가야산 주변에 부지기수로 흩어져 있는 석불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

※ 산수리 석불 : 최근 분실

※ 민속학계의 일부 견해 :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4방향에 세워진 비보장승으로,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셨다고 하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불명확함.

7) 부석면의 불교유적

○ 부석사, 동사, 간월암 등이 있으며, 특히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를 보필했던 무학대사와 연관된 곳으로 알려져 있음

8) 기타 절터

○ 전설에 등장하는 보원사에 속한 100번째의 암자라는 옥양봉 아래에 위치한 백암사지(白庵寺址), 동쪽으로는 원평리 신사동과 의현동 일원의 절터, 그리고 서쪽으로는 보현사지를 비롯한 용현리 보현동 일원의 절터 등

3. 기타 유적

1) 해미읍성

- 왜구와 해적들이 준동하던 조선 태종 14년(1414)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절도사영을 이설한 후, 효종 2년(1651) 다시 청주로 이전하기 전까지 충청도 서해안의 중심 군사 요충지였던 곳임.
- 현 해미읍성 서북쪽 국도변 반양리 '구해미'[또는 반계] 마을의 산성(山城)과의 관련성이 파악되어야 하며, 1649년의 일락사 중수도 읍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연구과제임

2) 음암면 유계리 한다리마을의 고택

- 정순왕후 생가(충청남도 기념물 제68호), 김기현 고가(중요민속자료 제199호), 용유대와 단구대

Ⅲ. 서산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1. 서산 관련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 사업규모 및 예산에 있어서 내포문화권 개발의 핵심지역으로 평가됨

- 사업 수 : 총 46개 사업 중 15개 (33%)

- 사업 비 : 총 1,050,577백만원 중 728,900백만원

국비 450,212백만원 중 368,730백만원

(가야산순환도로 및 내포권연계도로는 타 시·군과 중복)

○ 서산시 관련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량 (㎡)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부처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정신문화 창달사업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관	6,210	3,280	1,640	1,640	-	문화재청
문화유적 정비사업	가야산사적지 주변 정비	40,100	17,100	7,550	9,550		문화관광부
	서산마애삼존불주변정비	6,600	860	430	430		문화재청
	보원사지 정비	78,200	7,200	5,040	2,160		〃
	해미읍성 복원	184,600	51,500	24,360	15,940	11,200	〃
	천주교 순례지 정비	29,785	8,800		8,800		〃
	개심사 주변정비	4,000	2,420	1,310	1,110		〃
	명종대왕태실 주변 정비	5,500	1,000		1,000		〃
관광시설 확충사업	간월도 관광지 조성	108,100	35,730	6,250	9,520	19,960	문화관광부
	창리 관광지 조성	25,600	21,010	6,150	6,660	8,200	〃
기반시설 확충사업	가야산 순환도로	15	45,000	40,500	4,500	-	건설교통부
	내포권 연계도로	43	430,000	190,000	240,000	-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간월호 관광도로	21	96,000	83,400	12,600	-	건설교통부
	개심사 진입도로	1	3,000	2,100	900	-	〃
	명종대왕태실 진입도로	2	6,000	-	6,000	-	〃
계			728,900	368,730	320,810	39,360	

단계별	사업량	분야별 추진계획
1 단계	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 (4) : 해미읍성, 보원사지, 마애삼존불, 개심사 · 관광휴양 (1) : 간월도관광지 · 기반시설 (1) : 가야산순환도로
2 단계	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2) : 간월호 관광도로, 개심사 진입도로
3 단계	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 (3) : 가야산사적지 주변정비, 명종태실, 천주교 순례지 · 관광휴양 (1) : 창리관광지 · 기반시설 (2) : 명종태실 진입도로, 내포권연계도로

2. 사업의 특징과 과제

- 가야산 주변 불교유적 등에 대해서는 가야산순환도로와 함께, 인근 불교유적 정비사업이 대거 제1단계에 포함되어 서산 관광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부석면 일원, 서산시 내, 가로림만의 자원은 제외되어 서산시의 문화유적정비에 정책적 접근이 필요

- 가로림만의 생태자원 : 현재 대산읍 북부를 비롯한 내륙은 대거 산업단지로 조성되었으나, 가로림만의 갯벌과 평신진 등 일부 역사유적의 잠재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서산시 내 : 서산 관아의 삼문, 부성산성 등의 경우 근린 역사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 부석면의 불교자원 : 현재 간월도와 창리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을 뿐으로, 부석사, 간월암, 동사 등에 대한 정비사업은 제외되었음

IV. 개발 관련 향후 후속 방안

1. 미발굴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의 수립

- 가로림만 : 갯벌 등 생태자원, 관련 역사·민속자원(굴포운하, 평신진, 파지도영, 항금산 당제 등) 단일 권역으로 별도의 계획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로 판단됨
- 서산시 내 : 관아 관련 시설(삼문, 비석군, 성황당과 여단, 부성산성 등) → 근린 역사공원으로 활용 가능
- 부석면 일원 : 간월암, 부석사, 동사, 무학대사 관련 유적 등
- 기타 : 정순왕후 생가, 김기현 고가 등

2. 연계 개발의 모색

-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인접 또는 동일 유형의 자원간의 연계방안 모색의 필요성
- 특히 계획단계에서 순환코스를 전제로 한 자원간의 연계는 필수적으로 판단됨
- ① 예시 1 : 가야산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한 역사자원
 - 서산시 : 해미읍성, 서산 마애삼존불, 개심사, 보원사지, 명종대왕태실, 문수사
 - 홍성군 : 홍주성, 수덕사, (한성준민속무용 전수관)
 - 예산군 : 봉산사면석불, 내포보부상촌, 남연군묘(가야사지), 덕산온천 관광지, 윤봉길 의사 관련 유적

② 예시 2 : 부석면 일원

- 서산시 : 간월도 관광지, 창리 관광지, 간월암, 부석사, 동사, 무학대사 관련 유적, 천수만 철새도래지, 굴포운하
- 태안군 : 황도 관광지, 안면도(자연휴양림, 꽃지 관광지, 안면도운하 등), 굴포운하

※ 음영 처리 부분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미포함

⇒ 정비·개발사업과 함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함

3.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배경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건설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내방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적당한 관련 자원의 발굴의 필요성

○ 검토 가능대상 (예시)

- ① 강당골 불교유적의 경우(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등) : 보원사지 등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전시 등과 아울러 상왕(象王) 관련 전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전설에서 언급되는 인바위, 고양이바위, 쥐바위 등이 위치한 옛 길을 도보 통행로로 활용하며, 인바위 부근 옛 홍예교의 축대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볼거리를 다양화함
- ② 간월도 관광지의 경우 : 간월암과 관련된 무학대사, 정인경 등의 인물과 관련한 조사를 통하여 콘텐츠의 발굴 후 활용방안 모색
- ③ 굴포운하의 경우 : 과거 일시 완공되었던 당시 운하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의 조성 (부남호 상단 ~ 굴포운하 남단 유적지 사이)

→ 천수만 철새도래지와 선박을 이용한 이동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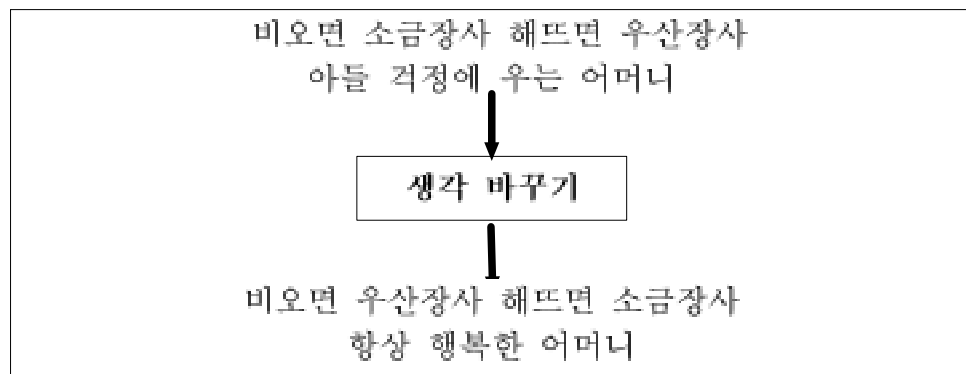
4. 주민 참여 및 추진 협의체 조직

- 관련 시·군 및 충청남도와의 협의·조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 관광지에서의 도우미 등 관련 활동, 문화 콘텐츠의 추가 발굴 등과 관련한 향토사가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
- 내포문화권 사업 추진 및 추가·후속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산시의 전담체제 구축 검토 요망

서산시 향토산업의 육성 방향

1. 들어가기 - 소금장사·우산장사 모자(母子)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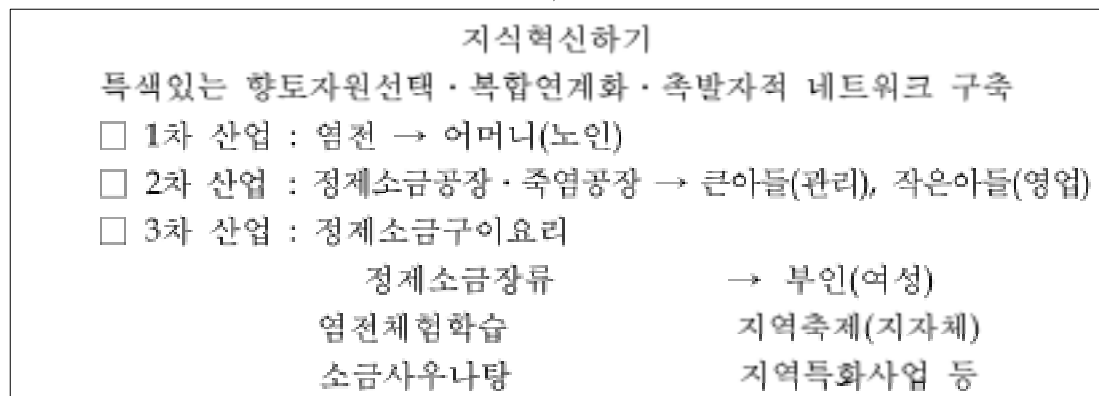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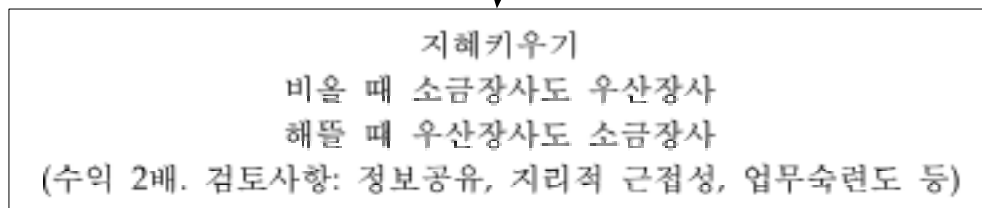
○ 개요



풍년이면 가격걱정 흉년이면 수입물 걱정
장마걱정 가뭄걱정 우는 농민 우는 정부

↓

운명주의·흑백논리



II. 향토산업의 내용

향토 산업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함

1. 주체 :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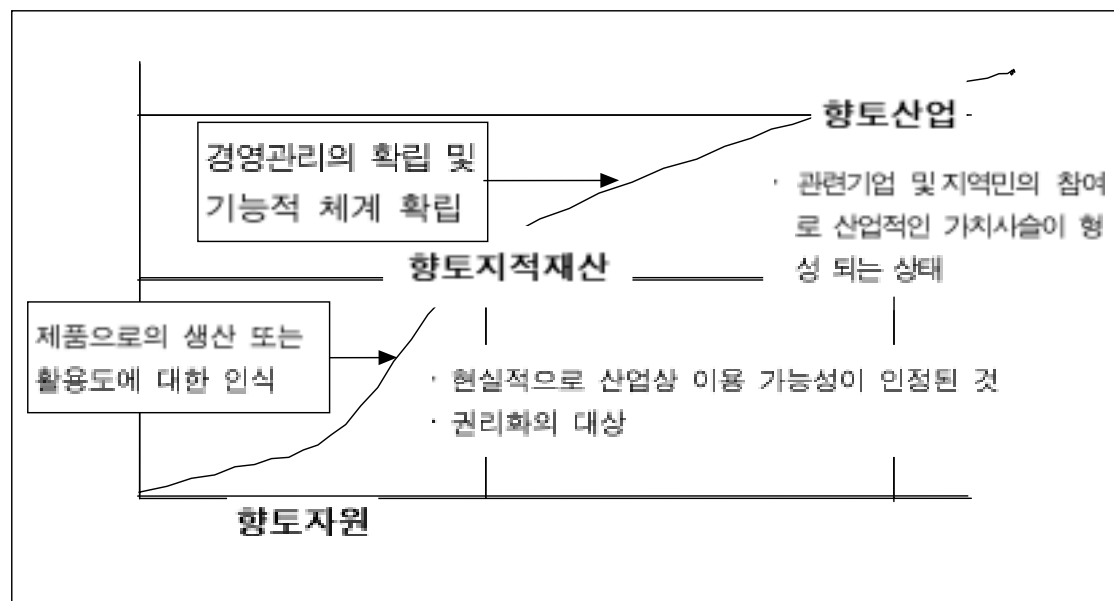
- 「지역사회」라 함은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향토 산업의 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향토산업에서 의미하는 지역사회는 ‘일정한 땅의 구역이나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단순한 지리적·행정 구역을 의미하는 「지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사회와 해당 지역의 구체적·지리적 공간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특별한 정서가 내포된 개념임
- 다시 말해 「지역사회」란 단순한 지리적 의미의 「지역」개념 외에, 공동의 이해관계, 친밀성, 지리적 근접성,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연결된 사람들간의 비공식적 관계 또는 연계망을 의미하는 개념임

지역사회 유형	대표적 사례
지역민의 협력	보성녹차
특정 개척자	진주상항버섯 장생도라지 황칠
관 + 민	함양 옷
관	보은향토산업 과주 DMZ산업

2. 객체 : 향토자원

- 「특성있는 향토자원」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사회내의 내재된 유·무형의 특성있는 지역자원 내지 전통자원을 의미함
- 여기서 특성있는 지역자원이라 함은 기후, 토양, 위치 등 지역의 물리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차별적인 특성(이하 지역성이라 함)을 지닌 것을 말하며, 특성있는 전통자원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사회 내의 생활과정을 통해 토착, 계승되어 온 독특한 생활 양식이나 관습 등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 (이하 전통성이라 함)을 지닌 것을 말함.
- 지역성은 산지나 산출물처럼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공간적 개념이며, 전통성은 전통지식, 전통고유문화, 기술 등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시간적 개념으로 양자간에는 지역적 특성, 즉 지역성으로 인하여 전통성이 각 지역에 다르게 형성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나 편의상 나누어서 설명하며 양자개념을 포괄하여 향토성이라 부르기도함.

3. 프로세스



4. 유형

1) 투입단계별 유형

구 분		내 용	사 례
자 원	유 형	생산 및 창작과정의 주요 모티브가 향토적 소재(전설, 속담, 전통지식 등)인 경우	장생도라지, 흑유도자기 등
	무 형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	강화순무, 보성녹차 등
생산과정		생산변환과정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	웃칠도장 피혁 등
산 출 물		향토자원을 기초로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화시킨 경우	김치주스, 김치 축제 등

- 향토산업의 투입단계별 유형은 자원, 생산과정, 산출물에 따라서 나뉘어 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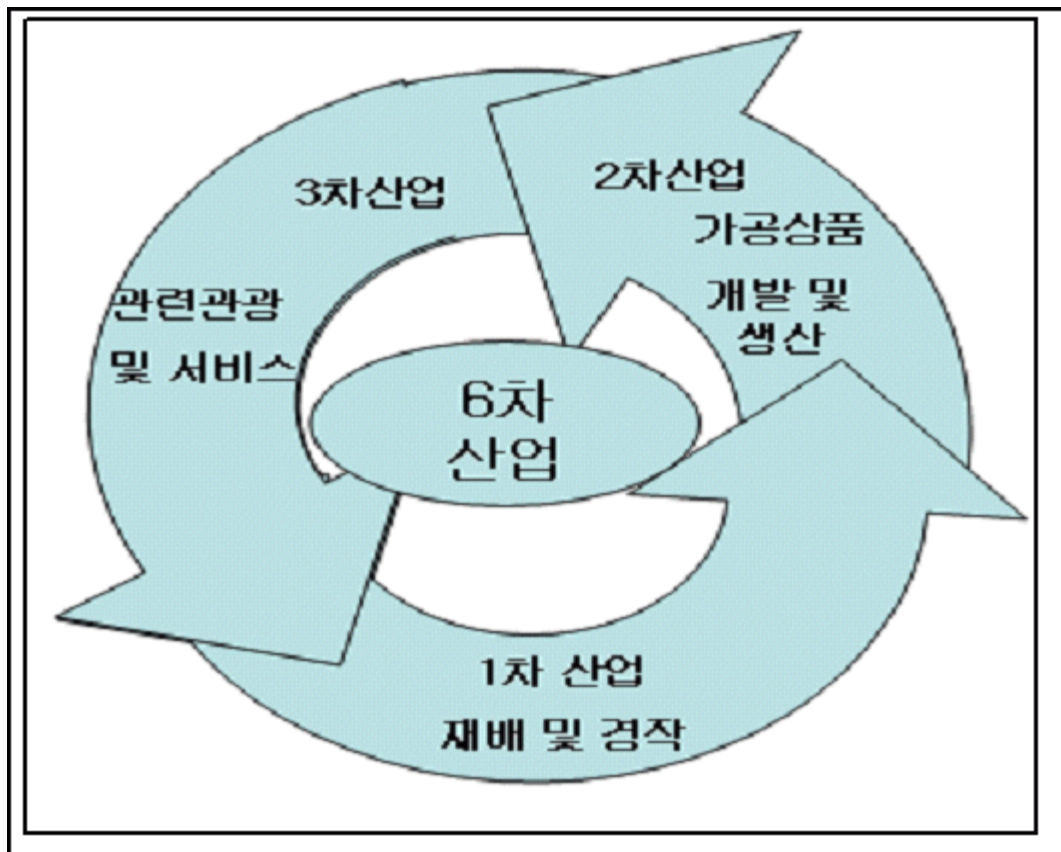
2) 산업분류별 유형

- 향토산업은 산업분류별로 1차 향토산업, 2차 향토산업, 3차 향토산업으로 나눌 수 있음

구 분	내 용	분 야
1차 향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유명한 산지인 경우 - 자원은 존재했으나 현대에 이르러 산지화된 경우 - 지역의 자연환경에 맞는 산물을 도입한 경우 	농업: 토종재배작물류, 약재류, 채채류, 견과류 등 임업: 산림용 종자 및 묘목류 축산업: 토종가축류, 양식어류 등 어업: 토종어로어류, 양식어류 등 유전자원: 미생물, 자생식물, 토종동물 등 기타 : 천연광물류, 공기, 물 등
2차 향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유명한 산지인 경우 - 전통지식 등의 산업화 - 지역부존자원을 가공한 경우 	외생활: 전통직물 및 제품, 전통염색 및 염료, 장신구, 전통한복혼례복 등 식생활: 한과류, 김치류, 장류, 떡류, 다류, 전통국주 및 민속주, 축산품 등 주생활: 창호, 목가구, 온돌, 향토방 등 기타: 한의약 제제, 화장품, 도자기 등
3차 향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관광지나 축제화 한 경우 - 지역특성을 캐릭터나 브랜드화 한 경우 - 지역의 차별화된 생활습관(식생활등)을 식당이나 프랜차이즈화 한 경우 	향토관광 및 축제: 민간전승 관광상품화, 전통체험프로그램제작 및 서비스등, 그 외 향토제품유통, 프랜차이즈, 향토소재 캐릭터, 영상, 출판등

5. 산업적 특성

- 원재료를 활용한 2차 산업의 가공 및 생산,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연계 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의 3차 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 6차 산업 지향
- 결론적으로 지역민은 자기적성에 맞는 사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손쉽게 향토지역브랜드로서 정착할 수 있음



Ⅲ. 향토산업에 대한 편견 내지 오류

1. 지역적 한계가 있는 산업이 아닌가?

- 특색(차별)있는 향토자원을 기초로 하나, 그 차별화·복합연계 산업화에 의한 세계속의 지역산업

2. 이러한 유사산업 및 정부의 유사개념이 이미 많이 있어 오지 않았는가?

- 향토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산업, 지역의 출향인사가 참여하는 산업 등으로 그동안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향토산업은 지역적으로 이미 특화되어 있는 산업으로써, 어떤 지역이 여타 지역보다 특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지역특화산업의 개념으로서 사용되어지거나, 지역산업의 일부로써 지역산업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시되고 육성시키려는 산업인 지역 전략산업과 혼용되는 개념으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었음
- 그러나 지역특화산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은 그 산업의 질적 특성과 상관없이, 현재적 입장에서의 양적 다수를 차지하거나 미래적 입장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 산업이며, 지연산업이나 지장산업은 일본에서 단순히 전통고유 소재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지칭하는 것임
- 이에, 향토산업은 특정지역사회의 특색 있는 향토자원을 기초로 하는 산업이지만 복합·연계된 1차·2차·3차 산업으로 인한 하나의 경제규모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이 있는 점에서 일본의 지장산업, 지연산업과 구별되며, 일

본과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나 재정규모, 민족적 특성이 다른 점이나 국토균형발전 및 낙후지역개발 등과 같은 현 우리나라의 실정에비추어 볼 때 하나의 특수한 산업 분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소위 전통사업 또는 1.5산업이 아닌가?

- 향토산업은 향토적 특성과 과학기술, 첨단 산업적 요소가 결합된 6차 산업임

4. 국내에 향토산업의 성공사례가 있는가?(후술)

5. 향토산업으로 지역혁신·신활력지역을 이룩할 수 있는가?

- 향토산업은 끊임없는 지역혁신사업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임

6. 농촌의 농외소득산업에 불과하지 않는가?

- 농업소득이며 농외소득임

7.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 기술도입된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물론 경우에 따라) 실속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 있음

8. 지역산업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 지역사회·향토자원 및 복합연계성을 가진 향토산업은 그러한 기반 및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산품과는 달리 지역의 기반을 떠나기 힘들며 지역산업 공동화현상을 예방하는 기본산업이 됨

9. 중국의 쌀 농산물 및 FTA 등에 대응할 수 있는가?

- 향토산업은 세계 속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중국 및 FTA 등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함

10. 고용창출 및 도시 실업자의 유입이 효과적인가?

- 이미 IT산업·서비스업 등이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며 특히 도시실업자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토산업은 20~30대의 지방소재농고, 전문대생은 물론 40~50대의 유입을 용이하게 함. 왜냐하면 도시 실업자나 젊은 실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단순한 기계적 업무 보다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자신의 창의력과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향토산업이 상대적으로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IV. 향토산업의 성공사례

1. 함양 옷 산업화 사례

1) 사업추진배경

- 함양군의 옷 산업화 제안(행정자치부 향토자원 시범사업 타당성평가)
- 함양군 마천면은 우리나라 옷나무 자생지 중 하나
 - 마천면 지역주민 소득원 중 4번째가 옷나무 관련 사업임
 - 함양군 마천면은 임야가 대부분인 지역임
 - 마천면 지역주민 소득원 중 4번째가 옷나무 관련 사업이 차지하고 있음

○ 옷은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가치가 있음

- 현재 마천면 주민의 옷 활용 상품은 대부분이 옷칠(화칠), 옷피나 옷순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옷은 친환경사업의 소재로 손쉽게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로 적용범위가 넓은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 소재로 알려져 있음

2) 사업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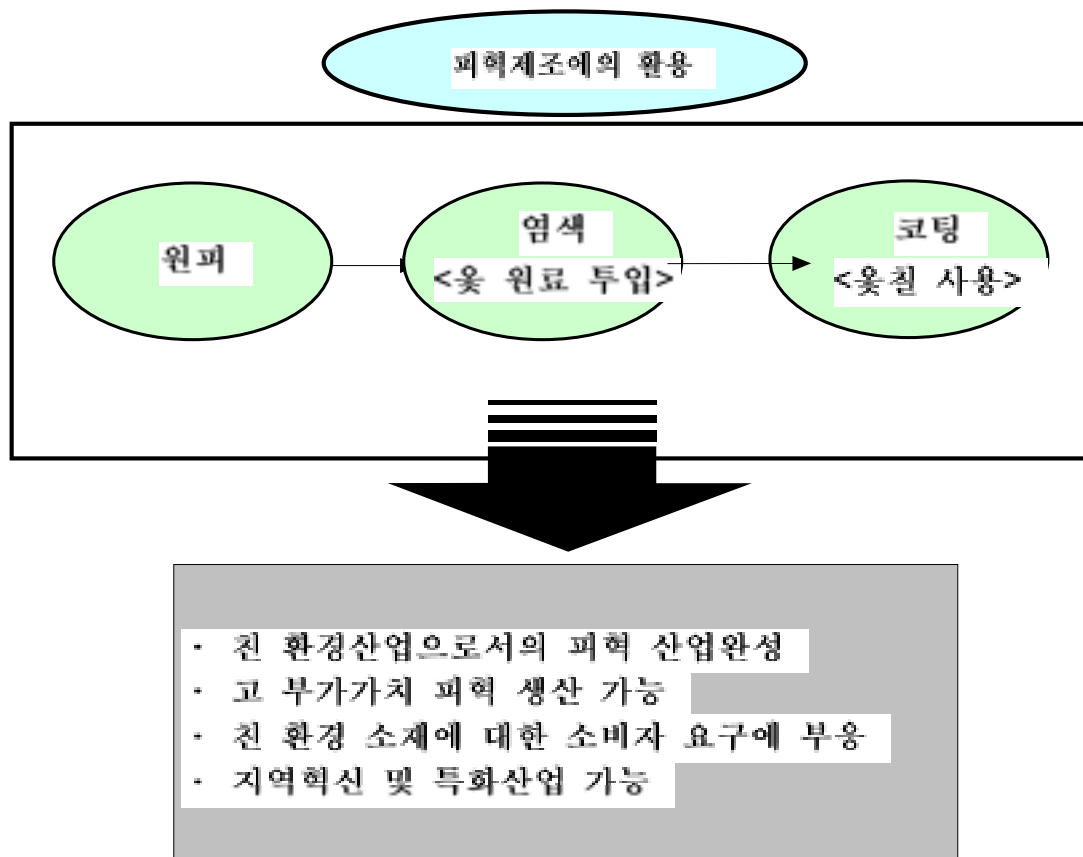
○ 옛 선조들의 옷 활용방안을 탐색

- 나무는 물론이고 가죽, 종이, 삼베, 모시, 명주와 같은 천 뿐만 아니라 금속 도기 등에도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음
- 실질적으로 목공예 뿐만 아니라 칠피공예가가 활동하고 있기도 함
- 실질적인 상품은 찾아볼 수 없으나 크리스찬 디오르 등이 옷으로 염색한 천을 이용하여 의류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음

○ 옷 활용의 제약조건

사업분야	제약조건	사례
식품분야	식약청 허가	타지자체 실패
약품분야	막대한 시간과 비용	동희제약(광혜원)
도료분야	도료산업취약(기술)	노루표 페인트 시도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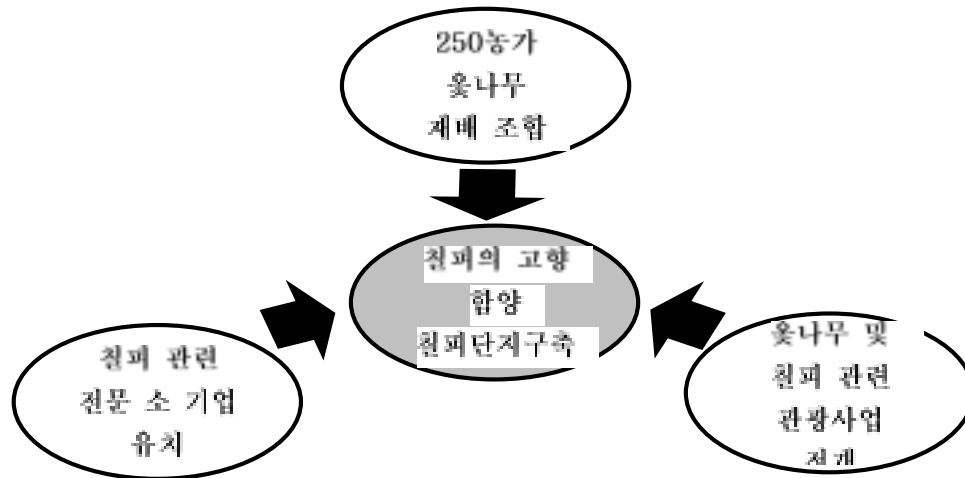
○ 사업 추진 방향 결정



○ 사업진행과정

- Step1 : 피혁산업현황조사 → 필요기술파악
- Step2 : 기술보유자 정밀조사(서울대 화학연구소 김우식 박사)
- Step3 : 피혁연구소 성능테스트(부산 피혁연구소)
- Step4 : 생품 미국, 이태리 유명 유통업체 의견조회
- Step5 : 권리보호절차
- Step6 : 특허기술가치 평가 → 16억원 지분 반영
- Step7 : 지방자치단체 출자 제3섹터 (주)하미 설립
- Step8 : 전문 소기업 연계 및 단지화 추진

○ 향후발전방향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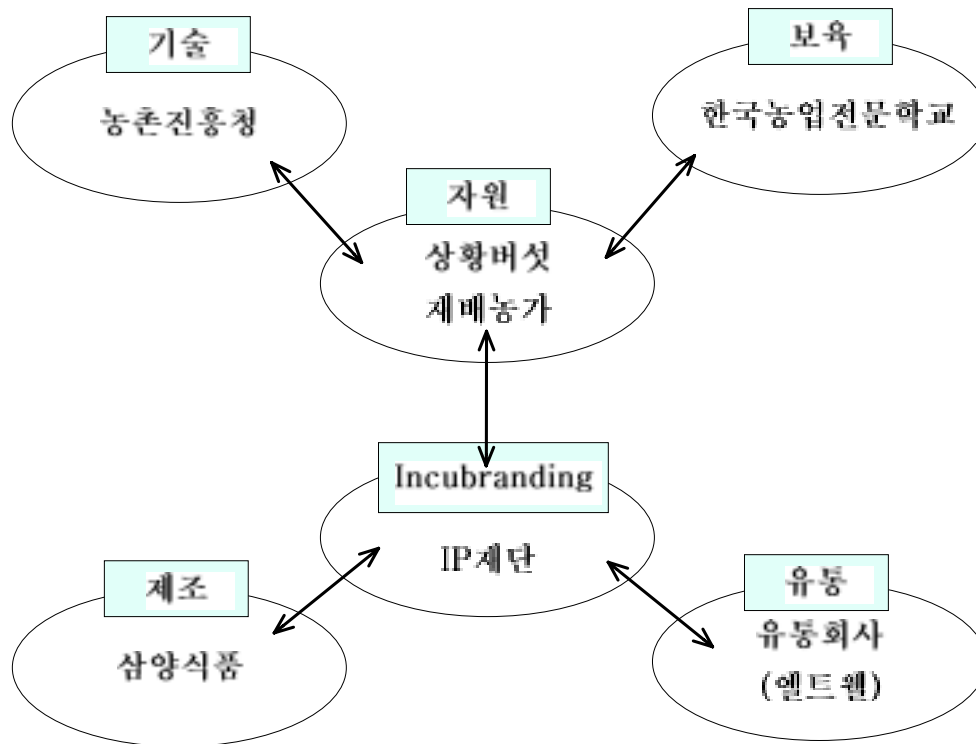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의 기술 상용화
- 고급기술 및 고급인력의 지방산업 이전
- 중국의 저가전략의 적극적 대응방안
- 지방산업의 세계화 가능성
- 단계적, 지속적인 Network 구축 및 다양한 지원
- 촉발자 육성의 필요성

2. 진주 상황버섯 성공사례

1) 사업추진배경

- 기술 수요자의 제안
 - 진주소재 버섯들이 3형제 상황버섯 상용화 제안
- 기술 파악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기술개발에 적용가능 파악
- 유통에서의 상품화 요구

2) 상용화 역할 구조



3) 상용화 진행과정

- Step1: 상황버섯 가공상품화 가능성 및 인허가 적합성 검토
- Step2: 상황버섯 식품 원료(부재료) 허가(식약청)
- Step3: 상황버섯라면 상용화 계획 수립
- Step4: 유통업체의 상황버섯가공상용화 요구(엘트웰) 및 가공기술 조사
- Step5: OEM 제조업체 조사 및 협약(삼양식품)
- Step6: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 계약 체결(농진청)
- Step7: 후속상품을 위한 브랜드 확보(버섯돌이 3형제, 영문Mushguy)
- Step8: 브랜드를 활용한 후속상품 개발(한의학 연구원 - 한방음료1.24)
- Step9: 유통다양화 및 대주오하를 위한 독자 상품개발

(웨이리마트-광주 KAIST기술결합을 통한 컵라면)

4) 향후 발전 방향

- 후속제품 다양화(한국한의학연구원 - 한방음료 상환 1.24 개발)
 - 광주 KAIST기술결합 - 컵라면 개발 예정
- Mushguy 중심의 버섯 관련 공동 브랜드 개발
- 지방자치단체(진주시)지원에 의한 설비 증설
- 바이오 기업의 전환가능성 타진
- 선도 향토기업으로의 발전

5) 시 사 점

- 수요자 및 시장요구 충족을 위한 단계별 실시간 one-stop 지원 시스템의 필요
- 전략적 지적재산관리를 통한 사업화 모델 제시
- 독자생존기반을 위한 브랜드 확보 전략 수립
- 첨단가공기술 및 새로운 용도 개발에 의한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 창출
- 농산물의 지역혁신 시스템(RIS)모델 제시

3. 보성녹차 성공사례

1) 사업(제도)추진 배경

- 1970년대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녹차재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
- 타 지역(하동) 녹차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으며 경쟁력이 낮았음
- 대기업 정책변화에 따른 원료공급 및 OEM지위 불안정

- 중국에 대한 녹차 시장 개방에 OEM 대응책 필요
-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리적 표시제 도입 필요성

2) 사업(제도)추진 효과

- 재배농가 및 재배 면적, 생산량 증가
 - '00 재배면적 425ha, 농가 수 158호, 생산량 650M/T
 - '01 재배면적 461ha, 농가 수 170호, 생산량 690M/T
 - '02 재배면적 518ha, 농가 수 220호, 생산량 960M/T
 - '03 재배면적 551ha, 농가 수 274호, 생산량 1200M/T
- 지리적 표시제 등록 후 녹차의 판매가격이 25~50% 상승
- 유희 노동력 흡수 및 인재양성
- 보성실업고 녹차과 신설(15명)전원 장학금 지원
- '03 관광객 550만, 소득 794억, 보성 재정의 11%
- '04 지역혁신사업 및 신활력지역지정

3) 향후발전방향

- 지리적 표시제도의 세제화를 위한 적극적 이미지 제고
-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 기존 지역관련 사업 간 연계성 강화
- 지역혁신(RIS)프로젝트 및 신활력지역 지정을 통한 다양한 고부가가치공동사업 추구
- 녹차특구지정유도

4) 시 사 점

- 녹차생산 농민과 지자체의 선도적 노력과 협동
- 저비용의 적절한 전략 수립
- 6차 복합산업화의 성공가능성 제시
- 지역밀착형 지자체 운영사업의 성공모델(해수녹차탕)
- 지방산업에 있어 독자브랜드 확보의 중요성
- 지속적인 촉발자 Network 구축

V. 향토산업의 발전방안

1. 복합산업화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제도 연구

- 농산물 품질 관리법, 주세법, 상표법, 각종 인허가, 업종 분류 및 세금 문제 등

2. 향토브랜드 구축 및 가치 향상 유도

- 향토산업은 단지 특정 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전체, 더 나아가 복합6차 산업 전체를 통합하여 이미지 및 개성을 나타내 주는 브랜드 파워가 필요
- 이는 지역/전통/생산체계에 대한 이미지를 유추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문화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 및 선택을 유도 할 수 있게 되며, 가격경쟁력이 아닌 이미지경쟁력을 갖게 됨

-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되지 않음. 그래서 경계활동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고, 유지하며,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되어 쉽게 타 지역에서 모방하거나 침입할 수 없도록 함
- 또한 향토산업에는 산업과 연계된 역사, 에피소드 등 유, 무형의 소재가 비교적 타 산업에 비해 많아, 소비자의 동감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예를 들면, 「스위스 시계」,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섬유」에서 시계를 생산하는 지역 및 기업은 많아도 스위스의 시계는 「스위스」라는 이름만으로, 와인인 「프랑스」라는 이름만으로, 그리고 섬유는 「이탈리아」라는 이름만으로 그 가치를 달리하며, 「한국김치」, 「고려청자」, 「고려 인삼」 등도 이러한 예임.
- 향토브랜드가 향토산업에 있어서 종래의 공동브랜드, 지역공동브랜드와 차별성을 갖는 이유는 지역명을 포함한 지역의 상징적 브랜드가 종래의 관련법령(상표법)등에 의해 보호되지 못했던 환경 하에서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음
- 그러나 현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상표법의 단체표장 등을 통해 직접적이고 국내외적으로 합법적인 보호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토브랜드 제도의 활용은 매우 시급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는 당면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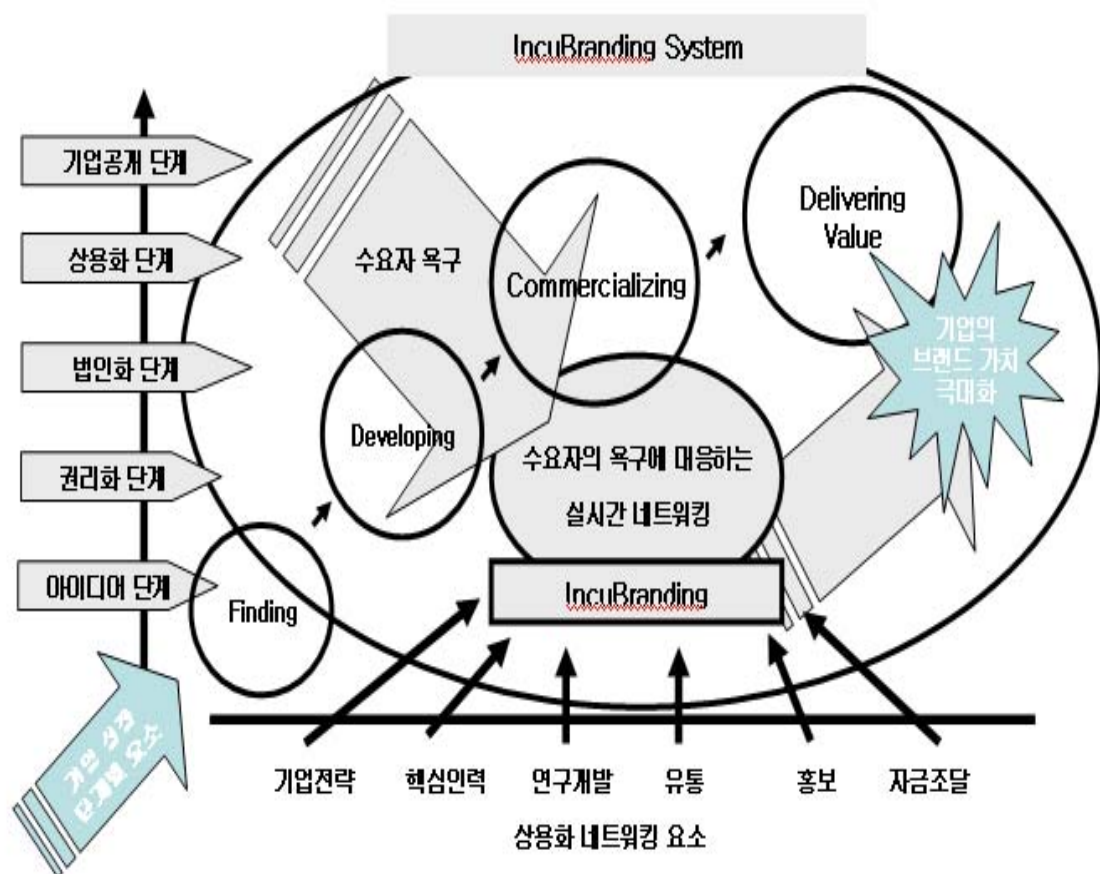
3. 기술상용화 유도

- 비교우위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한 해당 향토자원의 사업화 경쟁력 분석
-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 확보 및 시장중심의 기술 확보

- 산학연관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업화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 사업의 진단 및 부족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촉발자 활용

4. 운영 시스템 혁신 유도

- 함양 숲, 진주 상황버섯, 보성녹차처럼 향토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위한 제품개발, 기술이전, 유통의 다변화, 자금조달, 체계적 홍보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함
- 이를 통하여 지역 향토산업의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마케팅 전략과 문제해결을 동반자적 측면에서 진행함



5. 향토산업 특화 클러스터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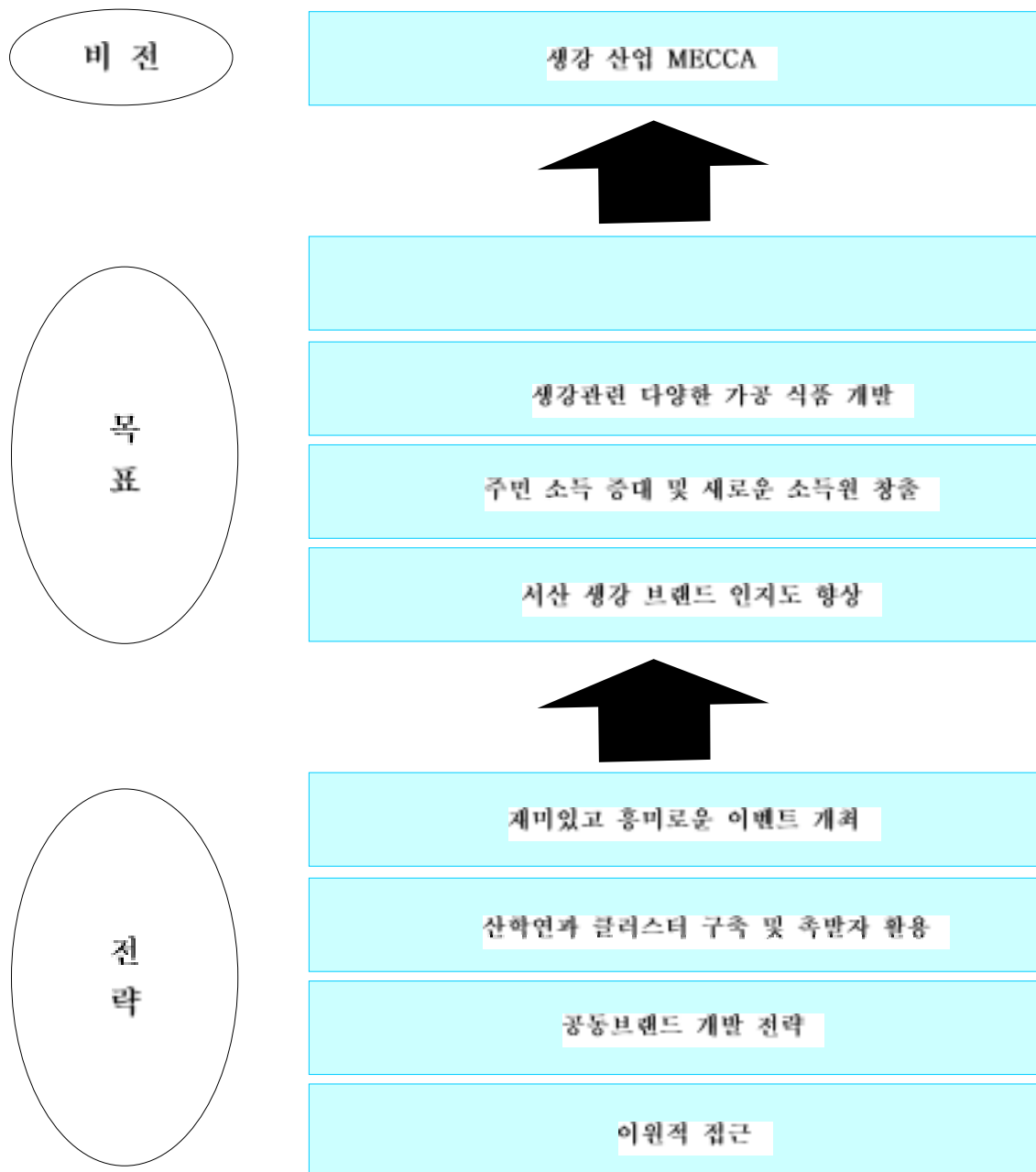
- 1차, 2차, 3차 복합 연계 클러스터 육성
- 산업 및 지역간 유기적 산업화 시스템 구축
 - 기능별로 분화된 전문기관의 집적으로 연계성 강화
- 인력 육성, 기술개발 측면에서의 클러스터 구축
 -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컨설팅 체제 구축 및 지역대학의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촉발자 조직 육성 계획 추진

- 향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leading-sector 육성
-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의 육성으로 지역산업의 연계성 강화 및 향토산업 육성의 유기적 통합
- 기획, 조정기능의 수행주체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탱크로서의 가치중대역할 수행자 필요
- 촉발자 조직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용화 네트워크 솔루션 시스템의 체계 구축

Ⅵ. 서산시 핵심 향토자원 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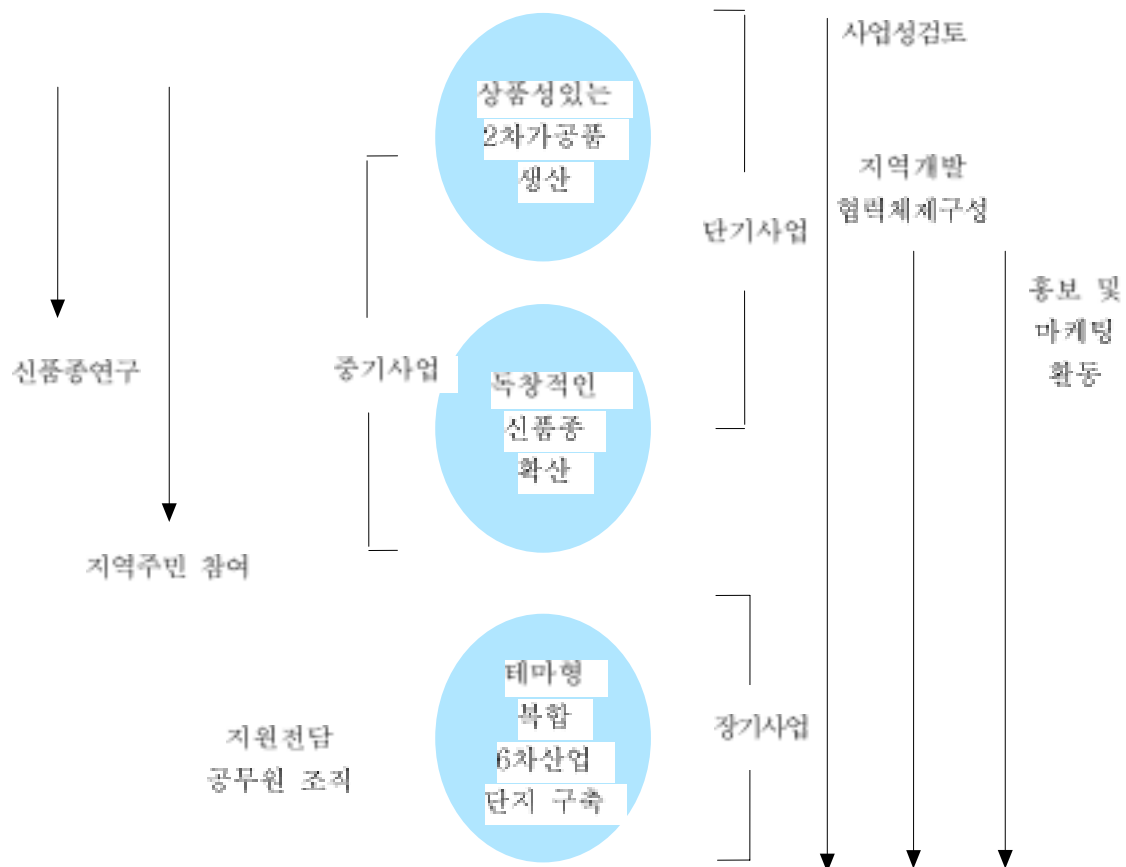
첫째: 생강



[그림 1] 서산 생강산업의 비전 및 전략

둘째: 서산 6쪽 마늘

셋째: 서산(서양) 난



[그림 2] 서산시 서양란 산업화의 단계별 추진체계

서산시 고품격 관광기념품 개발방안

1. 상품의 개념 변화

1. 관광기념품 영역의 변화

- 관광기념품이란 지역 고유의 전통성을 지닌 공예품과 일상용품 등 관광객이 방문지에서 구입 또는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지칭
 - 민예품 토산품 등 공예품 위주의 상품군을 형성
- 최근 들어 관광기념품의 영역이 일반상품과 모호해져 기존의 토산품, 특산품, 공예품 그리고 민예품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 민속주를 비롯한 식품류, 일반 공산품의 비중 증대
- 관광자가 오랜 기간 간직하거나 타인에게 선사되어 관광지를 방문했던 감흥과 추억을 유발하는 매체로 일반 상품과 구분되어 지역 이미지와 수준을 외부에 보여주고 파급하는 홍보물의 성격을 갖춘 문화상품으로 인식
 - 해당지역의 문화나 정서를 표출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지님

<표 1> 관광기념품의 종류

품 종		종 류
공 예 품	산업공예품	모형틀(디자인 원안)에 의한 대량생산품
	수공예품	장인에 의한 생산품
일상용품	공 산 품	의류, 신발류, 피혁제품, 문구류, 보석류, 완구, 장신구, 생활용품, 신변잡화 등
	식 품	인삼, 민속주, 한과 등 파자류, 농수산물 가공품 등

2. 상품의 개념 변화

- 제품(product): 소비자의 1차적 욕구(Need) 또는 2차적 욕구(Want)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에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것.
- 서비스(service): 타인에게 제공되는 실체가 없는 모든 활동이나 효익.
- 제품과 서비스가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서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
 - 제품-서비스 연속체
- 최근에는 상품이 유형과 무형의 범주에서 벗어나 조직, 사람, 장소, 아이디어까지 확대되고 있음
- 상품의 비중 중 비가시적인 부분의 증가
 - 브랜드적 가치, 감성적 가치, 사후 봉사에 대한 가치▶신뢰도의 요구
- 상품에 서비스 개념의 내포는 상품의 신뢰도를 중요시하여 상품의 브랜드에 대한 평가 또는 브랜드의 운영 능력이 곧 마케팅력으로 간주
 - 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의 인증 표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

3. 타겟과 트렌드의 변화

- 경제활동 층이 구매실체▶청소년 층의 합세▶주부 층, 실버 층의 부상
 - 다중화 된 타겟으로 시장의 세분화(segmentation) 필요▶상품의 다양화
- 자연주의, 정신적 가치, 고품격 지향으로 대표되는 웰빙 열풍
 - 반도시 문명, 자연회귀, 정신 존중, 무간섭, 반체제를 모토로 하는 고품격화 경향 (히피문화 외에 격식, 전통이 포함되어 있는 시민계급의 귀족문화 따라잡기) ※kitsch 문화, 일본의 가부키
- 도시 문명<자연 전원, 물질<정신, 양<질, 속도<여유, 복잡<단순저급<품격, 즉흥적<전통적, 무형식<격식을 내포하고 있음.
- 환경상품 : 주 재질 및 포장재 그리고 친환경 공법의 신중한 선택

II. 지역 관광기념품의 실태

1. 서산의 관광상품화 소재

- 환경자원의 활용 : 자연경관 산, 숲, / 강, 호수, 바다, 해안, 섬 / 계곡, 폭포, 동굴 / 저수지, 공원, 보다 구체화 된 대상인 나무, 풀, 꽃, 동물을 소재온천, 약수 / 마을, 거리 / 농원 / 박물관, 기념관 / 전시관 / 문화원
 - 갯벌, 서해, 천수만, 철새
- 유형자원의 활용 : 생활기술(의, 식, 주, 생활용품) / 유적 유물(서원, 향교, 고택, 고궁, 성곽, 산성, 능, 누각, 정자, 종교 유적, 역사적 유적지)
 - 해산물, 계곡지, 짚풀공예, 정순왕후 생가, 마애삼존불, 해미읍성
- 무형자원의 활용 : 민속(춤, 음악, 놀이) / 공동체 생활(동제, 지역행사, 재래시장) / 전설, 설화
 - 박침지놀이, 뱃가리대놀이, 서산장(가축)
- 특산물의 활용 : 유형 자원 중 지역의 산물, 민속주 등
 - 어리굴젓, 생강, 마늘, 꽃게장
- 인물의 활용 : 인물 중 뚜렷한 업적이나 기록을 남긴 인물
 - 안건, 정순왕후

Ⅲ. 서산지역 관광기념품의 문제점

- 서산의 대표되는 특성을 충분히 부각하지 못함
 - 지역의 전반적이고 우호적인 이미지의 도출과 활용 부재
 - 종교, 역사 소재의 단편적인 소재나 시각만으로 상품화
 - 이미 갖추고 있는 소재와 트렌드의 결합 부족(재해석)
- 공예품, 일상품 보다는 특산품(식품) 위주의 상품군 구성
 - 시장에 대한 확신의 결여와 업체의 영세성
- 일관된 스타일의 부재로 통합된 지역이미지의 구축이 어려움
 - 규모화 된 유통구조의 확보가 곧 상품 신뢰도로 직결
- 지역 내에서 생산,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상품의 명분이 없음
 - 식품류를 제외한 관광기념품의 외지 유입 (기념품 유통구조의 특성)
- 유사한 소재를 타 지역이 선점을 함.
 - 지역만의 고유성이 있는 소재는 드물며, 먼저 가공하여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하는데, 타 지역이 먼저 선점하는 경우가 많음
- 세분화 되지 않은 시장 설정에 따른 모호한 타겟

<표 2> 관광기념품의 유형분포

구분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석공예	가공식품	기타
충남	15.5%(12)	13.6%(14)	19.4%(20)	4.9%(5)	32.0%(33)	14.6%(15)
전국	18.1%(19)	8.6%(9)	6.7%(7)	1.9%(2)	21.9%(23)	42.9%(45)

IV. 서산시의 관광기념품 개발방향

- 서산의 제 모습 찾고 가꾸기(공동브랜드 개발)
 - 서산을 대표하며 지역민과 타 지역에서 공감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서와 앞으로의 한층 높아질 미래상을 제시하는 이미지의 설정이 절실
 - 서산이 갖춘 정체성의 재정립(이미지의 현대적 재해석, 스토리 부여)
 -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구체성 있는 공동브랜드 유형이 지역에 적합
 - 대표적인 충청도(Real 충남), 이미지의 계승 + 자연, 여유, 전통을 내세우는 현재의 웰빙이라는 트렌드와 결합
- 그린, 에코 마케팅의 적극 활용
 - 서산이 지닌 현재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개념이 내포된 상품의 개발과 서산의 이미지와 결합된 홍보
- 불교 문화제의 예술적 가치 재발견으로 활용성 확대
 - 종교적인 의미외에 문화 예술품으로서의 인식 확대로 상품 타겟의 확대와 국제 수준의 상품 개발
- 문화제나 전승놀이의 살아 있는 활용
 - 파급을 위한 기초 자원의 정립이 필요하며 연계된 산물, 전승공예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전통의 재창출
- 서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
 - 서산 지역의 원재료의 적극적인 활용
 - 유통의 2원화를 통한 지역내 상품의 지역내 유통 장려(지역내, 지역외)